

2002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서울캠 오늘(14일) 중강당 · 경주캠 17일 문무관

2002학년도 서울캠퍼스 전기 학위수여식이 오늘(14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열린다.

서정대 이사장, 송석구(철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학위수여식은 △삼귀의례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 식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62명, 일반대학원 석사 217명, 특수대학원 석사 332명, 학사 2천569명으로 총 3천 180명이 학위를 받는다.

공로상은 김지동(법4) 군과 박미진(한국화4) 양 외 3명이 받으며 이수랑(응용생물4) 양과 장우혁(전자4) 군이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고 정동일(선4) 군은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받게 된다. 또한 산악그랜드슬램(히말리아 14좌완등, 7대륙 최고봉·3극점 정복)에 도전하고 있는 박영석(체고 91졸) 동문에게 공



사진은 지난해 전기 학위수여식 모습.

로패가 수여된다.

한편, 학사전체 수석은 평점평균 4.32를 받은 정은영(산림자원4) 양이, 차석은 평점평균 4.29를 받은 연미경(선4) 양이 차지했다.

각 단과대별 수석졸업자는 △불교대=정순영(불교, 4.26) △분과대=한수정(영문, 4.18) △이과대=전현수(물리, 4.11) △법과대=민세원

(법, 4.16) △사회과학대=정진민(행정, 4.19) △경영대=설재경(정보관리, 4.21) △생명자원과학대=박정운(응용생물, 4.13) △공과대=김태원(전자, 4.18) △정보산업대=이병화(컴퓨터멀티미디어, 4.19) △사법대=이해나(교육, 4.18) △예술대=조정원(한국화, 3.86) △야간강좌=이은지(정보통신, 4.23)이다.

dmz@dongguk.edu

홍기삼 교수 총장 선임

“민주적 절차 따른 것” … 준비위 통해 운영방안 모색

본교 제15대 총장에 홍기삼(국어국문학) 교수가 선출됐다. 지난 달 9일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홍기삼 교수는 총 7표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조희영(경영학) 교수가 4표, 현각(선학) 스님이 1표를 획득했다.

홍기삼·조희영·정병조(윤리문화학) 교수는 지난 12월 20일 총장후보 추천 선거를 통해 재단에 추천된 바 있으며, 현각·보광(선학) 스님도 후보로 거론됐다.

이번 재단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학내구성원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라며 긍정적인 반응이다. 교수회는 지난달 13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학내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해 학교가 구성원과 협력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노조는 “학내 구성원이 추천한 후보자가 총장으로 선임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으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기삼 교수는 지난달 16일 ‘차기 총장 직무수행을 위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해 취임 전까지 학교 운영의 개괄적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교·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된 활동하고 있는 준비위는 △재무행정 △학사 △교육·연구 △인사행정 △의료원·경주캠퍼스 등 분야별로 연구하고 있으며 논의된 사항은 취임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공약을 중심으로 학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취임 후 업무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준비위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본부의 한 직원은 “새 인사발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인데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4일부터 3일간 진행하기로 한 부서별 업무보고가 각 부서의 준비 부족과 절차상의 문제로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몇몇 구성원들은 “불교병원 개원, 학부제 재검토 등의 현안이 산재해 있는 만큼 취임 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준비위에 대한 역할 규정과 이에 대한 구성원간의 합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조슬기 기자
choff55@dongguk.edu

신입생 O.T. 24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 지도교수와의 시간 등 마련

2003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24일부터 3일간 열린다.

첫째날 오전 9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 치러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교홍보 영상물 상영 △교과 배우기 및 불교합창단 공연 △특별강연 △캠퍼스 안내 영상물 △필요모니터 오케스트라, SSID 동아리 공연 △재학생 연예인 가수 공연 △응원가 배우기 및 백상응원단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신입생 모의토의이 오후 2시부터 동국관과 90주년 기념 문화관에서 실시되며, 같은 시간 중강당에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둘째날 오전 9시부터는 단과대별 오리엔테이션과 수강신청 예비교육이 실시되며, 오후 2시부터 학부·과 계열, 전공별 오리엔테이션과 지도교수와의 면담시간이 마련된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지정장소에서 단과대별로 수강신청을 한다. 한편, 야간강좌는 둘째날 오후 6

시부터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단과대학 전체와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마지막날 오후 6시 30분부터 수강신청을 한다. 단과대별 오리엔테이션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단과대학	오리엔테이션 장소
불교대학	문화관 K308
문과대학	동국관 L501
이과대학	상록원 식당 3층
법과대학	동국관 L101
사회과학대학	문화관 예술극장
경영대학	동국관 L401
생명자원과학대학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공과대학	본관 중앙당
정보산업대학	중앙도서관 2층 제1열람실
사범대학	학림관 소강당
예술대학	문화관 2층 세미나실 3
야간강좌	문화관 예술극장



예행연습 … 취업지원팀이 실천모의면접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면접은 신청자가 지원회사명 등을 접수할 경우 지원회사의 면접·취업관련 자료를 수집해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면접장면을 녹화해 학생들이 자기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류주형·구자선 동문 명예박사 학위 수여

류주형(농57졸, 대한이연회장) 총동창회장과 구자선(경영대학원 87졸, 태우주택 회장) 총동창회 부회

장이 지난 13일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여는 △류주형=총동창회장으로 동창회 발전에 기여 △구자선=총동창회 부회장으로 덕암세미나실 건립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결정됐다.

정대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만장일치로 선출 … 2007년까지 이사장직 수행

서정대 전 총무원장 스님이 지난 달 24일 동국학원 제20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정대 스님은 지난해 12월 23일 동국학원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

로 선출됐으며, 오는 2007년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대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용주사 주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오녹원 이사장 모란장 수상

국민교육발전 이바지한 공로

오녹원 전 동국학원 이사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02년도 국민교육유공 정부포상에서 총무원장, 동국학원 이사장, 능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불교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불교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돼 결정된 것이다.

오녹원 이사는 지난 30여년간 동국학원 이사를 역임했으며 총회 의장, 총무원장 등의 활동을 벌여 왔다.

수상식은 지난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열렸다.

본교 교수 8명 정년 퇴임

2003학년도 교수 퇴임식이 오는 24일 총장실에서 진행된다.

퇴임교수는 서울캠퍼스 △김동현(미술사학) △허천택(영어영문학) △백봉홍(법학) △신현소(생명·화학공학) 교수와 경주캠퍼스 △오영진(일어일문학) △방정애(철학) △최규철(사회체육학) △서정목(의학) 교수이다.

박영석동문 북극점 도전

23일 모스크바로 출발

박영석(체고91졸) 동문이 북극점 정복을 위해 오는 23일 모스크바로 떠난다. 박 동문은 모스크바에서 스키훈련을 받은 뒤 3월 20일 스키 도보를 시작으로 5월 초 정복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정복에 성공할 경우 박영석 동문은 오는 11월 남극점 정복에 도전할 예정이다.

속덕대와 자매결연

학생교류·공동연구 시행

본교가 오는 18일 일본 속덕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정을 통해 본교는 속덕대와 △교수·연구자·학생 교류 △학술정보 및 자료 교환 △공동연구 등을 시행하게 된다.

시마다 교수 유족 3만여권 도서 기증

중국사상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일본 교토대 고 시마다 겐지 교수의 유족들이 본교 도서관에 3만여권의 장서를 기증했다.

기증도서는 △2만여권의 동양서 △4천여권의 고서 △6천여권의 정기간행물 등이며 중앙도서관 지하 2층 ‘시마다 겐지 문고’에 보관됐다.

본 사 사 령

◇ 임 정기자
▲ 한숙희 (생자대1)
- 이상 2월 14일자

보리소

항상 웃고 참지만 한번 화내면 세상을 무너뜨릴 듯 무서운 사람이 있다. 또 평소에는 따로따로지만 어떤 계기가 있으면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의 힘을 내는 민족이 있다. 최근 로포 열풍을 보면서 혹시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지난 월드컵 때, 가장마다 TV가 있는데도 7백만이라는 거대한 인파가 일정한 시간에 특정 지역을 메웠다. 그리고 지난 97년 IMF때 나라를 살리자는 일념으로 금모으기로 하나가 된 적이 있다. 세계가 놀랐고 우리 자신들

무제

도 놀랐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 분명 그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번 로포 열풍은 일시에 7백만 명이 모이고, 수일 내에 수십 톤의 금을 모으는 그 응집력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해석은 천양지차이다. 흔히들 애국과 한탕주의의 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민족, 그러기에 결론을 빨리 도출하는 민족, 이런 민족성이 월드컵 때와 IMF때 그리고 이번 로포 복권에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이번 로포 열풍이 잘못된 것이라고 싸잡아 욕하고 싶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가난한자의 세금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의 조장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수백만이 꿈을 키운다는 것은 분명 밝은 면이다.

물론 그 정도가 지나치고 우리민족이 반응에 쉽게 자극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나쳐서 나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문제는 우리 민족성의 장점은 늘리고 단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서 오는 좌절을 최소화해야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장점은 크게 사용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위기 때 자연발생적으로 나와 민족을 놀라게 하는 것 만으로는 너무도 아깝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 나올 6개의 숫자에 모아진 한나뎌. 어떻게 국가와 민족발전에 접목 시킬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

남 선
불교방송 보도국 사회문화부장

동대신문 기획광고

졸업,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교정을 떠나지만 강의실, 식당, 작은 벤치 하나에도 당신의 꿈과 추억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당신께 동국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졸업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교를 기억하는
학교가 기억하는
동국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지면 안 내

4면

12면

6면

11면

졸업생들의 이야기

취업대란을 헤매는 대학 졸업생들. 그들의 복잡한 심경 속에는 우리 사회의 교육, 계층의 문제가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졸업을 앞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최근 기적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이유 등을 알아본다.

학위수여자 명단

퇴임교수 인터뷰



200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자비실천으로 '화합의 장' 만들길

용맹정진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새 봄의 서기가 이 남산의 교정에 가득한 오늘, 본인은 동국학원을 대표하여 영예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국학원은 불교의 자비정신을 견학이념으로 동국대학교를 개교한 이래 금년으로 97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우수한 인재를 수없이 길러내 온 명문사학이지만, 오늘 또한 여러분의 졸업으로 인하여 그 빛나는 역사의 한 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혼란으로 얼룩져 가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여러분과 같은 뜻깊은 의지와 자주적, 주체적 자아를 확립한 인격인들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국경과 국적이 해체되는 지구촌 시대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배타주의와 독선주의가 곳곳에 가득 차 있으며 종교·인종적 분류 역시 끊임 없이 분열과 혼란의 위기는 오히려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로 팽배해 가는 물질만능의 가치관은 우리들의 인간성을 급속도로 황폐



화시켜 인류의 보편적 도덕체계를 여지없이 허물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삼보의 언덕에서 자비정신을 익히고 체득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인류 공동체를 평화로 이끌고 생명의 존엄성을 살려내는 길은 '자비의 실천'이 그 최후의 보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물일체의 평등관을 기초로 하여 유정·무정의 생명가치를 최고로 하고 모든 남의 고통을 내 것으로 하여 다른 생명체들에게 기쁨과 삶을 영위시키는 것이 자비

의 실천행이라 할진대, 오늘날 인류에게 있어 공동체를 위한 이것 이상의 도덕적 의무는 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살리면서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또한 자비의 원리이며 불교의 진정한 이상인 대승의 길입니다.

불연이 누구보다도 돈독한 여러분들이기에 먼 인생의 여정에 항해의 닻을 올리는 오늘, 이처럼 간곡히 자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태간의 갈등, 동서의 불협화라고 하는 내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이 곧 국가 발전의 초석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였습니다. 냉철한 지성으로 판단하여 사리를 명료화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포용하여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하는 바입니다.

서정대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금성옥진(金聲玉振)의 동국 동량, 두남 일인(斗南一人)이 되라!

도리만전하(桃李滿天下)의 전당 동국을 오직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성실함으로 이끌어 온 여러분의 학사·석사·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 깊고 경사스러운 졸업식전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우리 동국학원 이사장 서정대 큰스님 및 이사 큰스님들, 20만 동국 동문을 대표하는 유주형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더불어 졸업생 여러분을 이날의 영광으로 정성을 다해 뒷받침 해주신 학부모님과 성실겸 학문과 참 인간의 길을 가르쳐 주신 교수,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국대학교는 불교의 전통 위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접목하여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사학 명문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동국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그 밑거름이었습니다.



이제 학위 취득으로 동국의 문을 나서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자부심으로 돌려 줄 수 있게 된 것 감사 드립니다.

지금 경제를 비롯한 국내외의 사정이 어려워 처지가 간두지세(竿頭之勢)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양에서 지덕을 겸비한 금성옥진인이 된 여러분에게는 두남일인의 현재(賢才)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마당입니다.

사실 인류의 전 역사는 과도기와 곤경의 과정이고, 이러한 곤경을 헤쳐나가는 주체를 자임하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곤경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곤경이 아니며,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다 해도 여러분이 영위해야 할 유일한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눈을 피해 갈 수 있는 좁은 지름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동국에서 배운 용맹정진(勇猛精進)의 정신으로 세계를 여러분의 세계로 포용하십시오. 그리하여 남의 고통을 들어주고 행복을 주는 실천하는 지성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영예롭게 이 자리에 서게 된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인간적 가치의 구현에 앞장서 온 우리 동국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 준 모든 동국 가족에게 감사 드립니다.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

소나기

내 대학생활은...야!



△내 대학생활은 보릿고개야, 졸업하기 정말 힘들었지.
△지나고 생각하니 가장 즐거운 날이야. 대학생이니까!
△내 대학생활은 여름철 창문이었어. 망쳤지.
△내 대학생활은 콤팩트 디스크야. 왜? 전부터 C, D, J...!
△내 대학생활은 '파'야. 왜? 파~란만장!
△내 대학생활은 소나기야, 가끔씩 갑자기 오지.
△내 대학생활은 학점, 연애, 친구가 전부라는데 나는 친구밖에 안 남았군.
△내 대학생활은 '아아여오우우우'야. 어어어이지.
△내 대학생활은 '춧물'이야. 항상 간당간당하지.
△내 대학생활은 '메멘토'야. 기억나는 순간이 없지.
△내 대학생활은 'Cu'야, 구리지.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목격담

축하합니다

△태운이형! 용환이형! 윤미형! 은영이형! 졸업 축하해요. -44기 일동
△불대 99학번 영철이형! 1년 동안 부부장 한다고 수고 많았고 졸업 축하해요! -석

△김의종의 졸업 축하
△송재창 졸업 축하하네. 더불어 군인대도. -영훈
△왕필과 김현미 졸업축하한다!
△병준이형, 보영이 수고했다. -Young2

수고하셨습니다

△1년동안 신문내트라 수고하셨습니다. 영자신문이랑 친하게 지내요! 동대신문 ZZang!!
△겨울농활 다녀오신 사범대 일꾼여러분

축사

새로운 도전의 길 앞에 선 졸업생 여러분께

월드컵을 기다리며 2002년이 언제 오나 손꼽았던 나날들이 어느덧 훌쩍 지나고 벌써 2003년 2월, 이제는 졸업과 더불어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즐거운 대학생활도 지나가고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경제사정과 좁아진 취업률 때문에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졸업입니다.

하지만 동국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기에 선배님들의 밝은 앞날의 시작인 졸업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월드컵을 통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힘을 확인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촛불시위는 우리에게 우리 민족은 '남비'가 아닌 '독배기'라는 것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극우보

수세력을 낙선시키고, 진보세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정권의 출발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선배님들이 정직과 성실, 정의를 실현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리라 믿습니다.

새 시대를 주도할 선배님들이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갖고 닦았던 지식과 가치, 신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선배님들을 뒤따라갈 많은 후배들에게 빛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후배들도 학교에서 선배님들의 모범을 본받으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길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캠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임수욱

쌀쌀한 바람이 누구러들고 따스한 봄기운이 찾아오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따스해지는 지금 선배님들과 동기분 그리고 후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동안 진리탐구와 미래를 향한 희망찬 꿈을 일구었던 여러분들의 굳건한 의지를 본받고 싶습니다.

항상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졸업이 다가오면 되새기게 됩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섭섭한 마음은 이곳에 남기고 희망의 포부를 담아 힘차게 출발하시길 기원합니다.

2003년 계미년, 뜻깊어아 될 한해가 열리고 모두가 새로운 즐거움에 부풀어 있는 이 시기에 미래에 대한 도전의 길로 나서는 여러 졸업생들에게 희망찬 행복이란 선물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간 후배들을 위하여 애써주신 마음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동양에서 동고동락을 같이 하며 보낸 4년 간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광의 졸업장을 받기까지 면학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지난 세월 새벽부터 밤늦도록 마음 편한 날 하루 없이 학생들을 뒷바라지 해 주신 우리들의 부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의 공간인 대학에서 참 지성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진정한 동국인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멋진 앞날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희망이 있길 기원드리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경주캠 총학생회장
김정태

축사

대학에서 배운 열정의 참의미

사회생활을 하다가 학생으로 신분전환을 하고 다시금 사회로의 회귀를 준비하는 심정은 불안과 두려움이 팽 할은 필법하다. 돌아보면 공부하러 학교를 다닌 것 보다 일러 다녔다는 말이 실없는 우스개 소리로 나오긴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열정이 빠진다면 허전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배워왔던 시절이었으리라.

사회에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 동기들의 고생담들을 듣다보면 업무의 과중함보다 관계의 소원함이 더욱 힘든 과제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리가 사람을 빛낸다는 으뜸장 같은 선배들의 말에 반론을 제기했던 기억이 난다. '사람이 자리를 빛낸다'는 것이 대학생활을 통해서 체험했던 교훈으로 남는다.

나와 함께 졸업을 하는 '졸업동기'들은 어느 세계로 나가든 그 공간을 빛냈으면 한다.

그리고 대학시절 동기들 간의 끈적했던 관계를 돌아가고픈 추억으로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신이 충분히 빛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강인욱 (야간강좌 영문 졸)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몽
△정남선배님 논문 쓴다고 수고했어요 -총무

열심히 하시다

△동대신문사, 동대방송국, 영자신문사, 교지편집위원회 모두 올 한해도 열심히 하세요~
-DUBS 제작부 42th
△제발 우리 밀도 있게 살자.
△국어교육과 졸업생들처럼 열심히 살아보자. 국교 4학년 만세!
△박정현 열심히 해!
△장기호, 일찍 와라! 그래서 합격하겠나?
△신숙아, 과제 열심히 해~ -제니

그리고...

△수학교육 97, 98, 00학번 포함한 4학년들 임용 전원 합격!! 난 수석!! -97 재운
△경주캠퍼스 이민우 서울캠퍼스 왔다갑니다!!
△경주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시설면이)
△휴연실에 방독면 설치해 주세요!
△조금만 더 열심히 만듭시다~ 동대신문!

안방길

축하합니다

△졸업하는 4학년 선배님을 축하드려요~
△영재(정산), 경애(영문), 성욱(경영), 제원(경영) 선배들 졸업축하해요~
△현석, 상기, 정환, 경태형들 졸업 축하합니다.
△박용정 양! 입학 축하합니다!
△조스~ 네 남이랑 사귀 지 끝 100일이네. 100일까지 가라~

수고하셨습니다

△학생회 간부 여러분~ 등록금 투쟁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은진, 기나긴 재수(?) 생활, 수고했다~
△승환, 해운아! 방학동안 집에 '짱' 박혀있었다고 수고했다.
△마이 구미, 멀리 네 녀 면회 갔다 오느

라 고생 많았다!!
△이정은, 너네 식당에서 오봉(-)순이 한다고 수고 많았다...

열심히 하시다

△제형아~ 동아리장 땀겨 추가한다. 열심히 해라~
△정화아~ 집행부로서 보람된 한해 되길 바란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윤정아~
△송이아... 23일 진짜 토익 셤이다. 열심히 하자!!
△OT 동아리 공연 준비 열심히 하시다~!

그리고...

△공대학생회 사무실이 생기는 그날까지 투쟁합시다!
△군행이 오빠! 멋있어요~ㅋㅋ
△보라, 진성, 슬기, 윤경, 하나! 파이팅~ 진짜부 수고가 많다~
△울 한 해 연애 사업, 잘 해보자구요~
△동국인 여러분, 고경관님! 이젠 깨어버립시다.

	동국관 학생식당	상록원 학생식당	상록원 교직원식당	경주캠 진흥관식당
월 (2/17)	닭갈비볶음 (1500)	소고기당면탕 (1500)	해물된장떡볶이 (3000)	카레 (1500) 만두국 (1200)
화 (2/18)	양지탕 (1500)	떡만두국 (1500)	떡볶이불고기 (3500)	카레 (1500) 만두국 (1200)
수 (2/19)	김치볶음밥 (1500)	순두부찌개 (1300)	동태찌개 (3200)	오징어덮밥 (1600) 국밥 (1300)
목 (2/20)	배추된장국백반 (1500)	콩나물국밥 (1500)	해물들숙밥 (3500)	오징어덮밥 (1600) 국밥 (1300)
금 (2/21)	오징어볶음 (1500)	홍합탕 (1500)	돈까스 (3200)	오징어덮밥 (1600) 국밥 (1300)

등록금 카드·분할납부 가능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등록

2003학년도 1학기 등록금 10% 인상

학교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불가피” ... 학생 “가예산 확정하지 않은 채 인상은 부담”

2003학년도 1학기 등록금 카드·분할납부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지난 학기 처음 시행한 카드납부는 △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엘지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교 또는 각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가능하다. 이중 비씨카드에는 2개월 무이자 할부를 시행한다.

한편 1.2차로 나눠 실시되는 분할납부는 오는 28일까지 등록금의 1/2이상을 납부하고, 잔액을 오는 4월 18일까지 본인이 지정할 날짜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28일까지 재무회계팀에서 받는다.

미당서정주 유품전 개최 20일부터 중도 전시실에서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 이하 중도)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신축 중앙도서관 대관기념으로 '미당서정주 선생 유품전'을 개최한다.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라는 모토로 열리는 이번 유품전은 중도 전시실에서 서정주 선생의 유품원고, 미발표 작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도는 오는 24일부터 자료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운영하며 제2열람실은 24시간 개방한다.

생협우정·으뜸장학생 접수 오는 17일부터 교학과

생협우정장학생과 으뜸장학생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각 단과대 교학과에서 진행된다.

총 48명을 선발하는 이번 장학생 선발은 보호자의 재산제와 토지세의 합계가 5만원 이하이며 평균평점 3점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서류는 △장학증명신청서 △보호자 재산세 과세증명서 △생협보호대상증명서이다.

교원 임용고사 97명 합격 합격생 약 74% 경기도 지역

2003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사에 본교 사범대생 97명이 합격했다.

지난 6일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94명의 학생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약 74%가 경기도 지역에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영진 사범대 교학과장은 “지난해에 비해 합격생이 30여명 줄었으나 이는 모집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임수욱·화공4)와 학교 당국의 등록금 협의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03학년도 예산편성이 신입 총장 취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등록금 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총학생회는 지난 1월부터 학교측에 가예·결산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예산편성권과 신규사업 결정권이 신입 총장에게 이양돼 3월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달 29일 기획인사처장실에서 정용길 기획인사처장(정치외교학) 등 학교관계자와 오선일 학원자주화투쟁위원장(국공4, 이하 학자투위위원장)을 비롯한 서울·경주 학생대표가 만나 등록금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측은 △교직원 인건비 10% 인상 △신규교수 채용 △물가 3% 인상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 총장이 취임해도 교직원 임금 상승과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회는 명확하지 않은 인상요인을 근거로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회측은 “확정되지 않은 가예·결산안을 바탕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등록금을 동결고지하고 학생·학부모와 협의한 뒤 책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2002학년도 적립금 공개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도서관 리모델링과 경주캠 기숙사 건설 등 방중 예정된 사업들을 새 총장 취임 전까지 진행할 수 없게돼 적립금을 책정할 수 없으며,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동결고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등록금에서 지불되는 인상교수 인건비의 비율이 높으며 병원에서 지급비를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임상교수 인건비는 100% 학교에서 지급하고 병원 수익으로 급여의 일부를 환원하지만 수익이 적어 금액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등록금 관련 1차 협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주에 10% 오른 등록금 고지서가 재학생에게 발송됐다. 이에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의 부담함을 알리는 편지를 각 가정



지난달 29일 기획인사처장실에서 등록금 협의가 열렸다.

발송했으며 등록금 납부 연기운동과 이에 동참하는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학교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측과 학교 당국의 등록금2차 협의는 예·결산안이 확정되는 신입 총장 취임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각인 ... 지난 2000년 새터사고를 당한 7명의 학생에게 오는 17일 정각원에서 명예졸업장이 수여된다. 또한 이날 학교관계자, 사고 학생의 학부모,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사고 3주기 추모제'가 정각원과 추모비 앞에서 진행된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졸준위 홈페이지 개설

취업속보·면접안내 등 정보 소개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현재형·토공4, 이하 졸준위)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취업속보 △면접안내 △자격증·어학·공무원 시험자료 등이 링크돼 있으며 주소는 http://www.dongguk.ne.kr이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에게는 취업정보 등을 알리는 이메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졸준위의 한 관계자는 “타 대학 졸준위 홈페이지도 링크

크래되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출자금과 배당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96년 2학기 이후 입학한 졸업생이며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만 1천원으로 졸업 후 5년까지 지급한다.

새터, 오는 27일부터 단과대별 진행

‘새내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행사 마련

2003학년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가 오는 27일부터 각 단과대별로 진행된다.

총학생회 구성이 무산돼 단과대별로 진행되는 이번 새터에서 △1진=법과대·사과대·생자대·예술대 △2진=경영대·공과대·사범대·야간강좌는 첫째날 중앙공연을 진행한다.

단과대별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불교대

날짜 2월 27일~3월 1일
장소 설악산 신흥사, 일송콘도
행사 풍물패 '하관사관', 밴드공연, 새내기 장기자랑

문과대

날짜 2월 28일~3월 2일
장소 소백산 일양유스호스텔
행사 새내기교양, 체육대회, 새내기 뽀내기

이과대

날짜 2월 28일~3월 2일
장소 안성 엄미목장
행사 풍물패 '장산꽃매', 밴드 '라면땅' 공연, 새내기 뽀내기

법과대

날짜 2월 27일~3월 1일

장소 속리산 신정유스호스텔

행사 중앙동아리 공연, 크로스 컨트리, 주제별 토론 '대학생활의 슬문화', 새내기 뽀내기

사과대

날짜 2월 27일~3월 1일
장소 속리산 신정유스호스텔
행사 중앙동아리 공연

경영대

날짜 2월 28일~3월 2일
장소 소백산 일양유스호스텔
행사 '큰들' 초청 마당극, 크로스 컨트리, 청년강좌, 새내기 뽀내기, 노래패 '산하' 공연

생자대

날짜 2월 27일~3월 1일
장소 속리산 신정유스호스텔
행사 중앙동아리 공연, 대동놀이, 새내기 뽀내기

공과대

날짜 2월 28일~3월 2일
장소 소백산 일양유스호스텔
행사 '큰들' 초청 마당극

정산대

날짜 2월 27일~3월 1일
장소 수안보 사조유스호스텔
행사 미스 정산대 선발, 새내기 장

기자랑, '손짓사랑회' 공연

시험대

날짜 2월 28일~3월 2일
장소 소백산 일양유스호스텔
행사 '큰들' 초청 마당극, 문예패 공연

예술대

날짜 2월 27일~3월 1일
장소 속리산 신정유스호스텔
행사 중앙동아리 공연, 소모임 공연, 크로스 컨트리, 새내기 장기자랑

야간강좌

날짜 2월 28일~3월 2일
장소 소백산 일양유스호스텔
행사 '큰들' 초청 마당극, 청년강좌

회전무대

무단결석

○...낙산학사는 높은 예약율에도 불구하고 방학동안 파리 날리는 날이 많다는데.

알아보니 예약을 한 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용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예약을 취소해 다른 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낙산학사를 예약한 한 학생을, “낙산학사, 예약은 필수, 사용은 선택(!)”

무풍기

○...중앙도서관 흡연실은 너무 리글을 연상시킨다는데.

알아보니 흡연실 환풍기의 성능이 떨어져 담배연기가 실내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이로 인해 흡연실 출입문을 열어 놓고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어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바람 없는 환풍기, 연기 날 날 없는 흡연실”

계산실패

○...얼마전 신입생 등록금이 고지된 후 학생들은 학교측과 학생회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이 달라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총학생회가 수첨비를 비롯한 학생회비를 제외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의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심사숙고 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잘못된 등록금 인상을 계산으로 학생회 불신도 인상(!)”

주객전도

○...최근 중앙도서관 도서검색 컴퓨터 주위에는 눈에 힘을 주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알아보니 도서검색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생들로 인해 검색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멀티미디어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만큼 도서검색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사용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 검색도 이제 포털 사이트로(!)”

단과대학별 학위수여식 장소 안내

▷ 자세한 문의는각 학과사무실로

단과대학	학 과	학위수여 장소	학부모 대기실	개별학위 수여식 시간
불교대학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정각원		12시 ~
	선학과			
문과대학	사학과	명진관 202	명진관 103	11 : 30 ~
	철학과	명진관 106	"	12시 ~
	윤리문화학과	명진관 208	"	12시 ~
	국어국문학과	명진관 207	"	11시 ~
	영어영문학과	명진관 204	"	12 : 20 ~
	독일학과	명진관 102	"	12시 ~
	일어일문학과	명진관 105	"	11시 ~
이과대학	수학과	명진관 302	명진관 306	12 : 20 ~
	화학학과	명진관 303	"	"
	통계학과	명진관 304	"	"
	물리학과	명진관 305	"	"
	반도체과학과	명진관 308	"	"
법과대학	법학과	동국관 M302	좌동	12 : 20 ~
	정치외교학과	동국관 M303	좌동	12 : 20 ~
	경제학과	동국관 L407	"	"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동국관 M307	"	"
	경찰행정학과	동국관 M304	좌동	12 : 20 ~
	사회학과	동국관 M306	"	"
경영대학	신문방송학과	동국관 M406	"	"
	국제학과	동국관 M405	"	"
	국제통상학과	동국관 L202	"	11 : 50 ~
	경영학과	동국관 L401	"	11 : 30 ~
	정보관리학과	동국관 L501	"	"
생명자원 과학대학	광고학과	동국관 L204	"	"
	회계학과	동국관 L101	"	"
	식물자원학과	육종학실실	G201	11 : 30 ~
	산림자원학과	경영학실실	G202	"
	생명자원 산업유통학과	경영학실실	G207	"
공과대학	응용생물학과	생물학실실	G203	12 : 20 ~
	전자공학과	원흥관 E606	전자공학과세미나실(E601)	11시 ~
	전기공학과	원흥관 E617	전기공학과세미나실(E219)	"
	토목환경공학과	원흥관 E517	토목공학과세미나실(E620)	"
	건축공학과	원흥관 E625	건축공학과세미나실(E626)	"
정보산업대학	화학공학과	원흥관 E217	화학공학과세미나실(E221)	"
	기계공학과	정보문화관 P401	정보문화관 P402	"
	식품공학과	원흥관 E317	식품공학과세미나실(E223)	"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문화관 P403		11시 ~
	산업공학과	원흥관 F101		12 : 20 ~
사범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보문화관 Q101		13시 ~
	국어교육과	학림관 406		12시 ~
	역사교육과	학림관 305		"
	교육학과	학림관 306		"
	지리교육과	학림관 307	제도실	"
	수학교육과	학림관 308		"
	가정교육과	학림관 407	학림관 408	"
야간강좌	체육교육과	체육관		"
	영어영문학과	명진관 A204	좌동	12 : 30 ~
	북한학과	동국관 M407	"	12 : 20 ~
	경제학과	동국관 L407	"	"
	국제통상학과	동국관 L201	"	"
예술대학	경영학과	동국관 L401	"	11 : 30 ~
	정보관리학과	동국관 L501	"	"
	회계학과	동국관 L206	"	12시
	정보통신학과	정보문화관 Q301		14시
미용학과	미술학과	K308	좌동	12 : 20 ~
	연극학과	문화관 소극장	"	12 : 30 ~
	영화영상학과	중앙도서관 A/V실	"	"

동약론

전원통과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졸업생 10명, 학위 취소되다.’

지난해 말, 미국 버지니아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졸업논문, 어떻게 하지?”

“이전에 제출했던 레포트 분량 늘려서 다시 내거나 인터넷 자료 짜깁기해서 내도 문제없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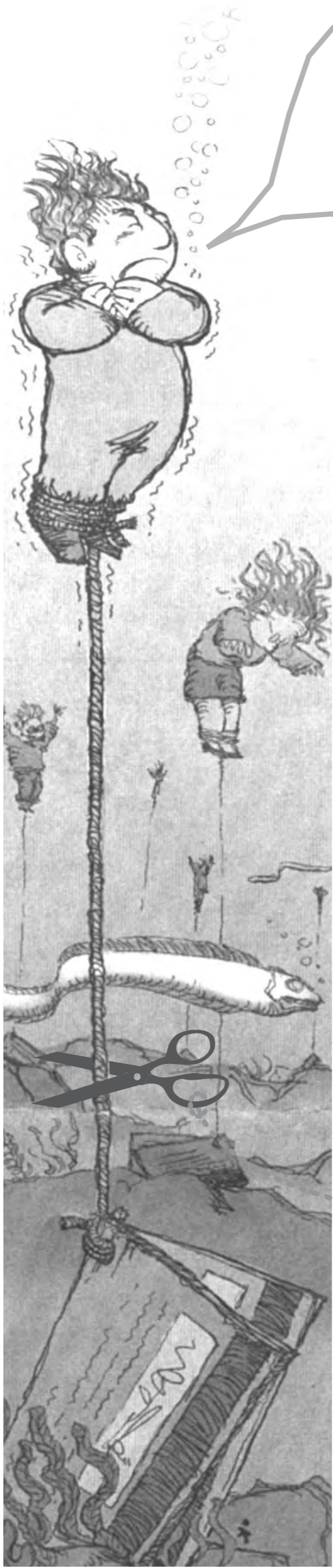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생각으로 졸업논문을 썼던 졸업생들은 뜨끔해 했을 일이다. 버지니아대의 경우를 우리학교에 적용시킨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학위수여자’ 명단이 아닌 ‘학위취소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졸업논문은 졸업·실기시험을 대신 치르는 일부학과를 제외하면 졸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학사과정 수료의 ‘상징물’이다. 전공지식을 충분히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졸업논문이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졸업논문 자체가 졸업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제출하든지 통과되는 것이 졸업논문”이라는 한 학생의 말처럼 이미 오래 전부터 졸업논문은 허울뿐인 제도로 관례화 되어왔다. 학생들도, 대부분의 교수들도 이러한 졸업논문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절감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인다. 학생들은 취업이 우선이고, 교수들은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의 사정을 ‘바주느’ 게 다반사다.

그렇기에 “전공과목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조차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라는 한 교수의 비판 섞인 말이 기우처럼만 들리지는 않는다.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평가를 상실한 졸업요건으로는 전공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 학생들의 ‘무사안일주의’를 오히려 확고부동히 하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졸업생과 예비 졸업생의 난상토론

“졸업! 이제 사회로 ...

그런데 내 꿈은 어디에?”

‘이력서 100통도 쓰지 않고 세상을 타 하지 말라’

어느 취업관련 서적의 제목이다. 그러나 졸업생 장서희 씨는 말한다.

“우리의 자취를 돌아보면 세상을 비판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대란을 해매는 대학 졸업생들. 그들의 복잡한 심경 속에는 우리사회의 교육, 계층의 문제가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장서희 씨와 졸업을 한 학기 앞둔 그의 친구, 오정환(컴공4) 군이 11밤 어느 찻집에서 대학생들의 졸업과 관련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시험점으로 평가받아 온 우리

장서희=요즘 취업 준비하는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사회의 교육 문제까지 눈에 보여, 스스로 뭘 하고 싶은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점수 맞춰서 입사지원서 쓰는 것



장서희(중문 졸) 양

같이 쓸쓸해. 마치 고3시절 점수 맞춰 대학에 진학한 것처럼.

오정환(컴공4)=우리 학교에도 4년 공부한 뒤 이제 와서 잘 안 맞는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중 고등학교 때부터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장=점수로 평가받는 교육 시스템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놔두질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대학입학 시험점으로 평가받던 것이 이전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학점, 토익점수로 평가받는 식이야. 답답하지.

오=우리나라 사람들 시험엔 정말 잘 적응 하는 것 같지 않아? 어떤 시험이든 활용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만점 받는 방법을 금방 꿰뚫어 버려. 그래서 점수 인플레이션도 심하고,토익만 해도 그렇지.

장=‘문제은행’이라는 문제집 알아? 이를 참 오묘하지. 어렸을 때부터 문제 풀고 시험보고 또 그 점수로 평가받고, 이런 구조에 의심을 품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오=그게 알지? 취업하려면 문과계열은 토익점수 800점, 이과계열 750점 정도는 넘어야 한다는 것 말이야.

장=모두들 토익이나 학점에 너무 몰두하는데 학과 공부와 활동, 예를 들어 동아리활동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책임감을 키울 수 있잖아.

나는 그런 건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왜 다들 안 써 주는 거야. 대체! (웃음)

내가 꿰던 꿈은

장=난 사실 좋아하는 사람을 꿈꿨었어. 중학교 때 장구를 쳐서 접한 뒤 고등학교 때는 새롭게 동아리를 만들려는 시도도 했었지. 물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그 때가 첫 번째 좌절이었던 것 같다.(웃음)

오=내가 컴퓨터에 빠진 건 고등학교 시절 컴퓨터 오락을 접해본 뒤였어. 그 후로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었어. 물론 고등학교 때 어떻게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있었겠어. 주위 사람들 도움 받아가며 어렵게 혼자 공부했었지.

장=그래서 컴퓨터공학과에 왔군. 그럼 너는 운 좋게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걸 일찍 찾아서 잘 진학했네.

오=글쎄. 그런 그렇지만 내가 불만인 건 대학에서도 내가 배우고 싶은 부분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에 다니며 일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컸지.

장=사실 난 대학 와서 다시 하고 싶은 걸 찾게됐어. 바로 동아리를 통해 접했던 마당극이야. 그래서 극단을 따라다니 보기로 했는데 너무 힘겹게 살더라구. 한 달에 30만원 벌어. 크게 충격 받았지. 그래서 다시 취업 결심했고.

‘돈벌어라’ 다그치는 사회

오=음...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생활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행복하게 산다는 건 우



오정환(컴공4) 군

선 잘먹고 잘입고 좋은 취미생활 하는 건데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게 아닐까.

장=맞아. 돈부터 생각해야 하는 이러한 구조도 다양한 미래를 생각할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 특히 부모님들은 더욱 걱정을 많이 하셔. 우리 언니는 원래 영문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교대에 가라고 끈질기게 설득하셨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이야.

오=아무튼 이렇게 돈이 필요한 사회이니, 취직 안되면 정말 부끄럽지.

장=나 대학생 3일 남았어. 안타까워. 우리 선배 중에는 돈 많이 벌지 못해도 뜻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난 왜 무언가 자 자꾸 다그치는지 모르겠어.

오=무언가 쫓아오는 것 같지? ‘돈 벌어라’ 하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것 말이야. (웃음)

정리=사회부
society@dongguk.edu

이젠 ‘점수’ 보다 ‘사람’ 을

기업 ‘인재의 상’ 변화 ... 채용방식은 과도기

지난 10일 오후, 졸업을 1년 앞둔 김 모군은 “H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며 취업지원팀을 찾았다. 그가 자신의 높은 학점과 토익점수를 늘어놓는 사이 상담원이 대뜸 물었다.

“왜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면접을 보기 위해서라도 지원동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상담원의 지적에 학생이 머뭇거리며 되물었다.

“글쎄요. 혹시 모범답변 같은 건 없나요?”

21세기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상’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흔히 ‘인재’ 하면 공부 잘 하는 수재형을 떠올린다. 좋은 학벌, 높은 학점과 영어점수 등이 수재형 인물의 조건이다. 이는 곧 높은 시험점수가 곧 탄탄한

미래로 직결된다는 오래된 믿음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기업의 인재 상은 이미 바뀌고 있다. LG경제연구소의 최병권 연구원은 기업이 원하는 인물을 ‘Right People’로 표현한다. 정확한 목표의식, 원만한 인간관계, 열정, 열린 자세 등을 갖춘 이른바 ‘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인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즉 채용방식에 있다. 취업지원팀의 김명숙 계장은 “각 기업에서 면접에 두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풀무원, 제일제당, 한국안선 등 상당수 기업들이 요리면접, 정신과 의사 배서 ‘스트레스’ 면접 등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그렇다”고 쉽게 대답하기를 주저한다. 학벌이나 토익점수 등의 영향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잡링크의 오규덕 상담원은 “면접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변별력이 높지 않아 마지막 관문에서 객관적 지표인 토익점수 1.2점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상담원은 “토익점수에 조금해하지 말고 더 넓게 보라”고 충고한다. 그는 “인성, 적성의 비중이 점점 높아 가는 추세이므로 지금 토익점수 1.2 점에 매달리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가치관과 직업관, 목표의식을 확실히 정립하고, 이에 맞는 특별한 경험을 쌓는 것이 취업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학벌과 점수평가 위주의 채용방식이 면접과 자질 평가중심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윤경기자
itsU@dongguk.edu

그대들 고이 가게나 아침을 바라는 새순을 보듯이
따뜻한 봄햇살 가득 그대 가는길 비추리오

2000년 새터사고

3 주 기 추 모 제 및 명예 졸업식



2003년 2월 17일 늦은 1시

정각원 / 추모비 앞

일곱 친구를 기억하는 사람들 / 35대 총학생회 비대위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상선이 북한에 송금한 2,235억원의 실제 및 송금 절차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진부한 통치행위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진상 규명 및 사법 심사를 외면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특별 제를 도입하여 진상규명과 사법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와중에 검찰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하여 수사유보를 결정했다. 노무현 당선자 측은 진상규명에 동의하면서도 정치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한편, 국민들의 대다수는 최소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이 사건이 갖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 사건은 행정부의 행위이므로 당연히 법치행정, 책임행정, 공개행정의 원칙상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요청이 있을과 동시에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 단계상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혹은 밀행적인 요소가 용인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갈등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의 충돌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이 두 가지 요점을 조화롭게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나아가 법치행정, 책임행정, 공개행정이라는 현대 국가의 행정 원칙에 근거하여도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김인희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일위원장

'대북송금 파문'이 남긴 과제

나아가 향후 계속하여 발전할 남북관계를 대비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정책 공감대 마련 계기

이를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만일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예정된 제도이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둘째, 국회 역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책임이 있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우선적

인 담당기관이므로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국정조사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치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이 남북한 관계와 직접 연결된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무엇보다도 국회 내에서의 해결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대북 송금 사건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점이 있다면 당사자들은 마땅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북 송금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혹은 불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점이 있었다면 그 당사자들은 마땅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책임행정, 법치행정은 당연한 요청이다. 또한 현대상선에 비리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 발전이 지체되거나 위기에 빠져서는 안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남북한 관계는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구호의 차원이 아니라 행동의 차원으로 발전했다. 실로 수 십년만에 찾아온 기적이다.

'남북관계 역류' 막아야

따라서 이번 사건에 의하여 남북한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남한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행위를 하였는가 하는 점에 핵심이 있지,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킨 정부의 정책이 옳고 그른가가 핵심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남북관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의 부당한 부분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하여야 한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한 남북교류행위는 행정절차의 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로 처벌하면 충분하다.

차제에 남북교류협력법의 위반이라는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당국자사이의 협력사업이나 경협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의 문제제기는 조항 역시 개정되어야 한다.

제15대 총장선거 분석 및 평가

일부 구성원에 집중된 '절반의 성공'

이번 제15대 총장선거는 올해 불교병원 개원, 제3캠퍼스 건립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난 98년 재단의 일방적 총장 낙점을 경험한 바 있는 구성원들은 누가 총장이 되느냐 못지 않게 어떤 절차에 따라 선임되는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때문에 이번 동국학원 이사회의 총기삼 교수 총장선임 결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이 화합해 총장직선제를 성사시켰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교수중심' 선거 진행

이번 총장후보 추천선거는 지난 94, 98년과 달리 교수·직원·학생이 논의자리를 마련하고 학내 구성원 모두가 후보자 유세에 참여하는 등 결집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90%에 육박하는 투표율은 이번 선거에 대한 구성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초반 형성된 공조의 분위기가 막판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교수중심 선거'

로 치러져 아쉬움을 남겼다. 교수회가 유세 하루 전 일방적으로 후보간 토론회가 아닌 단순 질의·응답으로 진행방식을 바꾼 것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관련해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교수들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유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보자 공약에서 직원·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이 내 대대적인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누락돼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공약에서 후보자간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구호성' 공약이 많아 정책중심으로 선거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후보자 검증 기회 제한

후보자 검증기회가 유권자에게 한정돼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소외됐다는 지적도 있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 정책자료집은 교수회와 직원노조 사무실에서만 배부됐으며 유세 또한 각 캠퍼스에서 한 차례씩 단순 질의·응답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참여

기회는 전무했다. 이에 대해 주진완(국교4) 34대 총학생회장은 "모든 구성원이 후보자를 검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총장선거가 학교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참여 저조

지난 94년과 마찬가지로 학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의 참여가 저조한 점도 남긴 과제다. 이번 선거에서 총학생회는 집행부 부족과 학생회 선거와의 일정 중복 등을 이유로 유세 참여와 후보자 공약 분석 자보를 불이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 94년 총학생회가 '총장직선제 사수를 위한 범동국인 서명운동'과 각 후보자에게 서명질의를 전달하는 등 주체적인 활동을 펼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반면 교수회는 학년초부터 교수를 대상으로 '민주총장후보선출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장선출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직원노조 또한 분임토론과 개별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

였다.

제도적 절차 마련해야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구성원간 분열, 교수와 직원의 힘겨루기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됐다. 때문에 구성원간 합의된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지난 12월 20일 분사 주최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교수·직원·학생은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본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장선임은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구성원의 참여 방법, 총장선임의 시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학내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논의의 자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총장선거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55@dongguk.edu

사설

이제 새로운 동국을 준비하자

지난달 9일, 본교 제15대 총장에 홍기삼 교수가 선임됐다. 새 총장이 결정되기까지 그간의 과정과, 재단의 일방적 낙점사태를 빚었던 98년 총장선출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 진일보한 결과다. 학내 제주체의 참여 여부와 정도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8년 만에 교수 직선제로 이룬 결과인 동시에 어느 때보다 높은 학내 여론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 이번 총장선출 과정의 의의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차기 총장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기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차기 총장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 시작을 잘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미온적인 태도와 지지부진한 인수·인계 작업이 오히려 행정 운영에 차질을 주지는 않는지, 준비 과정에서 학내 여론 수렴의 통로가 배제되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등록금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현 총장 체제'는 여러 요인을 들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10%인상, 고지했다. 하지만 인상된 등록금으로 예산을 집행할 주체는 차기 총장인 만큼 적어도 사전 논의 과정은 있어야 했다. 등록금은 인상해 놓고, 예산 책정과 집행에 대해서는 "차기총장이 할 일"이라며 함구하는 것은 앞뒤가 전도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더욱이 그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정당한 인상근거 제시의 요구마저 무마하고 있으니 말이다. 때문에 등록금 협상 등 관련된 문제는 차기 총장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일산 불교병원의 개원, 제3캠퍼스 건립,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학부제 검토'와 그에 기반한 2004년 입시안 제정·시행 등 재반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학내 구성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결국, '새로운 체제'는 차기총장은 물론 학내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협력으로 준비하고 이뤄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겠다. 차기총장은 약속대로 '새로운 백년을 위해 꺼지지 않는 장명등(長明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동국 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감시와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o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김주길,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3-1270, 전화 (054)770-2568, 팩스 (054)770-2057

2003학년도 학사일정(안)

년	월	일	학사내용	비고
3	3	3(월)	개강	
		3(월) ~ 5(수)	1학기 휴학 신청(2차)	각 교학과
		3(월) ~ 5(수)	1학기 특별시험 접수(1학년)	교양교육운영실
		4(화)	2003학년도 입학식	총무팀
		5(수) ~ 7(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각 교학과
		8(토)	1학기 특별시험(1학년)	교양교육운영실
		17(목) ~ 19(수)	조기졸업신청	각 교학과
2	4	27(목) ~ 28(금)	수강과목 취소(W)	각 교학과
		6(일)	1학기의 1/3일	
0	4	11(금)	4·19 등반대회	학생복지실
		24(목)	1학기의 1/2일	
3	5	8(목)	개교 97주년 기념일	
		8(목)	부처님오신날	
		11(일)	1학기 2/3일	
6	6	13(화) ~ 15(목)	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사지원실
		26(월) ~ 30(금)	전공/복수전공 신청(2학년)	각 교학과
		2(월) ~ 15(일)	1학기 강의 평가	홈페이지
		9(월) ~ 11(수)	2학기 복학·재입학 신청(1차)	각 교학과
		16(월) ~ 18(수)	2학기 휴학신청(1차)	각 교학과
		16(월) ~ 20(금)	2학기 수강신청	각 교학과
		16(월) ~ 27(금)	1학기 성적 처리(입력, 공시 및 정정)	홈페이지/담당교수
		23(월) ~ 7. 16(수)	하계 계절학기	학사지원실
		23(월) ~ 8. 24(일)	하계방학	

년	월	일	학사내용	비고		
8	8	18(월) ~ 20(수)	2학기 복학·재입학 신청(2차)	각 교학과		
		18(월) ~ 28(금)	2학기 등록	재무회계팀		
		20(수)	200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총무팀		
		25(월)	개강			
		25(월) ~ 27(수)	2학기 휴학 신청(2차)	각 교학과		
		25(월) ~ 27(수)	2학기 특별시험 접수(1학년)	교양교육운영실		
		27(수) ~ 29(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각 교학과		
		30(토)	2학기 특별시험(1학년)	교양교육운영실		
		2	9	16(화) ~ 18(목)	조기졸업신청	각 교학과
				25(목) ~ 26(금)	수강과목 취소(W)	각 교학과
0	10	28(일)	2학기의 1/3일			
		16(목)	2학기의 1/2일			
3	11	2(일)	2학기의 2/3일			
		4(화) ~ 6(목)	동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사지원실		
4	12	24(월) ~ 28(금)	전공/복수전공 신청(1학년)	각 교학과		
		24(월) ~ 12. 7(일)	2학기 강의 평가	홈페이지		
		8(월) ~ 10(수)	1학기 복학·재입학 신청(1차)	각 교학과		
		8(월) ~ 12(금)	200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각 교학과		
		8(월) ~ 19(금)	2학기 성적 처리(입력,공시 및 정정)	홈페이지/담당교수		
		11(목) ~ 15(일)	200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1차)	학사지원실		
		15(월)~2004.1. 8(목)	동계 계절학기			
		15(월)~2004.2.29(일)	동계방학			
		2	2	13(금)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총무팀
				16(월) ~ 18(수)	1학기 복학, 재입학 신청(2차)	재무회계팀
16(월) ~ 27(금)	1학기 등록			각 교학과		

근로장학생 선발계획

2003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자격**
가. 1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신입생은 2학기부터 가능)
나. 주당 16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다. 취득학점 17학점, 평균평점 C0이상이자 (단, 졸업이수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5학점 이상)
라. 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자
-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월 200,000원 기준, 매월 동국가족복지장으로 지급
- 근무부서별 업무내용 및 선발인원** : 추후계시
- 선발방법 및 기온**
가. 선발방법 : 면접을 통하여 선발
나. 선발기준 : 가계곤란정도, 근무부서만족도, 학업성적 등 고려
- 선발일정**
가. 공 고 : 2003. 2. 10(월) ~ 2003. 2. 18(화), 각 대학 및 인터넷 게시판
나. 접수 기간 : 2003. 2. 17(월) ~ 2003. 2. 18(화)
다. 면접 일 : 2003. 2. 19(수), 10:00 ~ 16:00
라. 합격자발표 : 2003. 2. 20(목) 오후 2시, 부업게시판 및 홈페이지 학생생활게시판
마. 합격자소집 : 2003. 2. 20(목) 오후 3시, 각 해당부서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본교 학생복지실(본관 3층)
* 신청서와 각 근무부서별 업무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http://www.dongguk.edu) 종합게시판의 학생생활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2260-30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캠 학생처

2003-1학기 중구청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2003-1학기 서울시 중구청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 선발인원** : 약간명
- 장학금액** : 1인당 1,100,000원 - 1,400,000원
- 선발대상**
가. 성적우수자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중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주소지)한 구민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002-2학기 평균평점 3.0이상)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나.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중구지역)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 신청기한** : 2003. 2. 17(화) ~ 2.18(목)
- 신청장소** : 각 단과대학 교학과
- 제출서류**
가.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첨)
나. 장학생 추천서(별첨)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사회봉사인증서(지역사회 공로자에 한함)
마. 월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서울캠 학생처

200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자 명단



사진은 박사학위 수여자임.
오른쪽 사진은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수여자.

박사학위 (총62명)

- 철학 (3명)**
 - △이중석=밀교비로차나불(密敎毘盧遮那佛)의 연구
 - △이성렬=선(禪)의 몽환관(夢幻觀) 연구
 - △조극훈= 사회적 이성의 측면에서 본 헤겔 이성 개념의 한 연구
- 문학 (8명)**
 - △김춘식=1920년대 동인지 문단의 미적 근대성
 - △유정일='기재기이(企齋記異)'의 전기소설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변지연=박상룡 소설 연구 - 근대 극복의 양상을 중심으로
 - △유대균=조선 초기 주자소(鑄字所)에 대한 연구 - 설립과 주자(鑄字)기술을 중심으로
 - △허혜정=근대 낭만주의 시에 나타난 미의식과 불교적 정서 연구 - '백조' 동인들의 시와 시문을 중심으로
 - △김신표=T. S. Eliot의 작품에 나타난 기독교 신비주의 : 대립과 통합
 - △김희주=대한광복단 연구
 - △김종국=영화색채의 이데올로기 연구
- 법학 (1명)**
 - △고기복=국제법상 난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관한 연구
- 정치학 (3명)**
 - △김수철=한국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연구
 - △한평석=동북아 협력안보레짐의 형성에 관한 연구
 - △조항록=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연구 - 한국에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 행정학 (3명)**
 - △박항식=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 △하춘광=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급자 측면을 중심으로
 - △최화식=지방 공공서비스가 자치단체간 주민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 경찰학 (3명)**
 - △김용화=한국의 살인범 Profiling 모형에 관한 연구

- 경영학 (3명)**
 - △안동세=한국 제조기업의 국제소싱전략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 △노경호=기업 인터넷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도입요인 및 조직특성을 중심으로
 - △조성제=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물류기능 구조 결정요인분석
- 이학 (5명)**
 - △오일수=A Study on Simplicity and Semisimplicity of Quantaes
 - △이종선=Optimization Techniques of Time Interval Partition using Fuzzy Inequality in Temporal Databases
 - △안창호=AHP방법과 LISREL모형을 이용한 게임완성도 평가모형 설정 및 Web DB 구축에 관한 연구 - 설문조사 자료에 의한 실증적 연구
 - △장재숙=아동의 친구와의 대인관계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 △이화영=영화의상의 표현성에 관한 연구 -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 농학 (1명)**
 - △최우철=레시틴 고풍유 콩 품종의 탐색과 정제이용에 관한 연구
- 공학 (8명)**
 - △김주용=LVQ 네트워크의 성능 개선을 위한 하이브리드 지능시스템
 - △이준=LDFC Coding and Selection Criteria for Multimode Modulation Coding Scheme
 - △이창환=자바와 C언어 결합을 위한 자바 전처리기
 - △민영기=생활체육시설의 수요 및 배분에 관한 연구
 - △신상훈=구조적 손상을 받은 RC보의 휨보강 성능평가
 - △박명철=고분자 유화제가 아크릴 에말전 점착제의 점착물성에 미치는 영향
 - △강창훈=김치로부터 bacteriocin생산 균의 분리, 동정 및 bacteriocin의 특성
 - △허석=지능 구조물의 능동 진동 제어
- 한의학 (18명)**
 - △김규만=장의학의 학술사상에 관한 연구
 - △노동일=석창포(石菖蒲) 약침액(藥鍼液)의 암 예방 활성에 관한 연구
 - △이재욱=급성 산화적 간손상에 미치는 월국환의 효과
 - △주승균=천궁다조산(川芎茶調散)의 진통

- 효과 및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
- △이병욱='천금요방(千金要方)'과 '천금익방(千金翼方)'의 학술사상에 관한 연구
- △김기봉=분심기음(分心氣飲)의 모성분리 Stress 백서에 미치는 영향
- △김성호=청아환(靑娥丸)의 Peroxynitrite 및 활성산소 제거 기전에 관한 연구
- △오수석='부인대전양방(婦人大全良方)'의 역해와 한방부인 과학적 의의에 관한 연구
- △민상연=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가미(加味)방(方)이 흰 쥐의 성장과 학습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
- △정병운=하고초(夏枯草)가 흰쥐에서 고지방 식이에 의해 유발된 비만에 미치는 영향
- △김현수=상지(桑枝)추출물이 고지방 식이에 의한 체중 변화와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 △이신규=Effect of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extract on organic hydroperoxide-induced renal cell injury
- △김법진=A study on reduction of atherosclerosis and hypercholesteremia by Gejibokryunghwan in cholesterol-fed rabbits
- △이재욱=Effects of Drynariae Rhizoma extract on the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and mineralization of osteoblastic MC3T3-E1 Cells
- △박철수=Inhibitory effects of Polygonum cypripatum on cholesteryl ester synthesis in HepG2 and on iNOS and COX-2 expressions in RAW 264.7 cells
- △박경수=Paeng Jo Yeon Nyeon Baek Ja In Hwan(PJBH) attenuates hydrogen peroxide-induced injury and antagonizes calcium dysregulation in PC12 cells
- △송영림=Inhibitory effect of Scutellaria barbata D. Don (Lamiaceae) on hCG-promoted proliferation of uterine leiomyoma and myometrial smooth muscle cells
- 의학 (6명)**
 - △서진천=흑색진균에서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를 이용한 유전자 다양성 분석
 - △최석진=흰 쥐에서 광물성 이물질에 대한 피하 조직반응과 유발형 산화질소 합성 효소의 발현
 - △고옥=Transient Global Ischemia Increases Apoptosis and Neurogenesis in the Rat Dentate Gyrus
 - △김연진=흑색진균에서 종합효소 연쇄반응 및 제한효소 절편길이 다양성을 이용한 Ribosomal DNA 분석
 - △박형근=저산소증 후 재관류에 의해 유발된 백혈구의 혈관내피세포 유착에 대한 Nitric Oxide의 역할
 - △신승철=Tyrosine-Phosphorylation of Cyclic 2',3'-Nucleotide-3'-phosphodiesterase and its Expression in Dissociated Hippocampal Neurons

석사학위 (총567명)

일반대학원 (217명)

△이종수=조선 후기 열불계(念佛契) 연구
△최유라=아뢰야시(阿賴耶識)의 진방의(眞妄義)에 관한 연구
△양정연=‘보제도등(普提道燈)’에 나타난 보제심(普提心) 연구
△태선주=‘유식이십론(唯識二十論)’의 유식무경논증(唯識無境論證) 연구
△김숙이=‘불소행찬(佛所行讚)’을 통해 본 불타 전기 연구
△박세규=다르마카르피의 일체지자(一切智者) 논증에 관한 연구
△최미남=‘구경일승보성론(究竟一乘寶性論)’의 자성(自性) 청정심(淸淨心)에 관한 연구
△정원용=원효의 역동적 회화(和尙)사상 연구 -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김강정=현대물리학의 불교적 교찰 - 주관과 객관의 총체적 인식을 중심으로
△이재형=불교논리학에서 아로하론의 전개과정 연구 - Digama와 Dharmakīrti를 중심으로
△정말크=A Study of the Letters of Korean Seon Master Haram
△강향숙=하타요가에 나타난 탄트라적 요소
△노정환=Mahasatipatthana-Sutta(대염처경(大念處經))의 수행관 연구 - 정법·정지(sati-sampajañña)를 중심으로
△권광범=순창식 소설 연구
△전지선=김요섭 동화론 연구
△김현진=방근인의 대중소설 연구
△방영미=1930년대 사상투쟁과 회화의 전향논리
△정해원=한국 전후 희곡 연구 - 가족의 해체와 복원
△염영미=김광근 초기 시 연구 - 미수록 발표시를 중심으로
△김영우=영어 어 reveal-유형동사의 말뚝기 기반 어휘분석
△김용완=제6차 중등학교 교육과정(영어과)이 대학수학능력시험(외국어 영역)에 미치는 영향
△윤연정=소수자 되기와 경제적 글쓰기-나딘 고디머의 ‘거짓의 날들’(The Lying Days)과 ‘자연의 놀이’(A Sport of Nature)
△조흥근=남평 조식의 교육 및 학문관 - 경의(敬義) 사상을 중심으로
△정태희=1934년 The 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를 통해 본 Cordell Hull의 자유무역옹호론
△허상호=조선시대 불탁(佛禱) 장엄(莊嚴) 연구
△김성태=고운 최치원의 서예 연구
△김정은=조선시대 삼장보살도 연구
△손영문=조선시대 미륵도상의 연구 - 계인형(契形形) 불·보살상을 중심으로
△류양규=조선 후기 궁궐 기와 연구 - 문물과 병합론 맥락을 중심으로
△남궁준=통일신라 불교조각의 밀교적 요소에 관한 교찰 - 석탑 부조상을 중심으로
△김명식=주희의 중화살에 관한 연구
△이영미=고려 연등회의 연형 공간 연구
△박재현=단편영화 ‘도시의 뼈에로’ 제작에 관한 연구
△김경나=단편영화 ‘웃자라야 보인다’ 제작에 관한 연구
△채태호=서울시 뮤지컬 단 연구 - 공연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심재홍=‘리어왕’의 연출적 접근방법 연구 - 제작발표를 중심으로
△정영권=한국의 사회적 리얼리즘 영화 1980~1997 - 계급사회사적 성격을 중심으로
△김성범=SF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제작주의적 양상을 띠게 되는 이유에 대한 교찰
△김현정=한국 영화 산업 내 조합의 필요성 연구 - 해외 영화 산업 사례에 근거하여
△이용주=십이야’의 집사 말발리오(Malvolio)의 인물 형상화 연구 - 제작 발표를 중심으로
△윤혜숙=영상문화시대의 필름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 한국영상자료원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장보성=플리츠·가짜리의 ‘되기’의 정치학과 페미니즘 -‘감각의 제국’‘바그다드 카페’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은=‘존재(존재)의 기록하기’를 통한 작품 제작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최고야=사진에 대한 시각의 매커니즘적 접근과 이를 통한 회화작품 제작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김기영=교원정년단축정책 결정과정 분석
△이영미=제7차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집단의 특성 - 서울시 B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학=전자거래의 계약법적 교찰
△이정목=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이준구=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주체와 제조물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재영=CORPORATE GOVERNANCE에 있어서 PRIVATE ORDERING에 관한 연구 -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중심으로
△김성영=지방행정조직의 ‘팀’제 개혁에 관한

연구
△김경옥=한국의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지훈=한국의 민영교도소 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수=북한의 ‘청년봉사’ 정책에 관한 연구
△박오영=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강원도 사례를 중심으로
△신재부=한국의 기업가치 변화 및 요인분석
△허충=외환위기 이후 은행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연구
△남승용=한국 직업훈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이성수=우리나라 유통업의 생산성동향과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김택상=소유 구조가 대비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은경=이동통신전화의 고객이탈에 관한 연구 -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이진아=기업 브랜드와 제품 브랜드 개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 자동차 제품을 중심으로
△허규완=유통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물류에 관한 연구 - 현대자동차사를 중심으로
△김현=인터넷 쇼핑물의 서비스품질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각된 위험을 중심으로
△윤종화=전환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신뢰와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이의창=정보시스템 보안 위협(Security Threats)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내기업의 정보기술(IT) 활용수준을 중심으로
△신정훈=신 한일어업협정의 분석과 평가 - 협상분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정준=역의 NDF 시장과 국내 원·달러 현물 시장간의 정보전이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정원철=한국기업의 대중국 이동통신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 CDMA 방식을 중심으로
△이성률=양육제와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실증분석
△최윤정=조세지원제도에 의한 법인세 유연화 현상에 대한 실증연구
△이유진=재무비율이 기업인용 평가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김진필=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연구 - 코스닥 등록기업을 중심으로
△정성수=회계이익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 주별 수익률을 이용한 회계이익의 공시지연 검토
△장선영=개인지 특성에 따른 IS요원의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강희석=종자가 호텔의 관계마케팅 활동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정훈=호텔 레스토랑의 메뉴가치에 관한 연구 - 자각된 위험, 비교매뉴 가격, 인적·분위기 서비스 품질, 메뉴 품질을 중심으로
△남궁원=국내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 대기부문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김일중=단면도 분석을 통한 제주도의 지형 연구
△최성우=CdZnTe의 광유전 반도체 특성
△정영석=MBE법에 의한 GaMnAs 자성반도체 성장연구
△이재근=팔라듐(II) 및 백금(II) 포스파이드 착물의 합성과 반응성
△이윤희=Polystyrene에 분산된 Spirophenant hroxazine의 광반응에 대한 연구
△손순주=P,N,P-pincer ligand를 가지는 Ru(II)-nitride 착물 (PNP)RuCl2(RCN)
△오현정=데이터 마이닝에서 배깅과 부스팅 기법의 비교 연구
△최성용=조건부 다변량 t-분포를 응용한 베이저안 중화기 분석에 관한 연구
△김창현=결측 자료가 있는 회귀모형에서 로버스트 방법에 의한 변화점 위치 추정 연구
△장영욱=HVP법에 의한 GaN의 성장 및 특성 연구
△임성상=HPNA V2.0를 위한 Analog Front End의 설계
△김수연=위성방송수신기용 CMOS 주파수합성기의 설계
△유용상=DVD PRML용 6-bit 2GSPS CMOS A/D 변환기의 설계
△권기성=2.4GHz CMOS 2단 저잡음 증폭기 설계에 관한 연구
△김종민=광대역 차동 CMOS IC 전압 제어 발전기 설계 연구
△김경일=MBE로 성장시킨 CdTe/Si(211)의 초기 성장에 관한 연구
△심영석=Silicon 나노결정을 함유한 MOS 구조의 형성 및 특성 연구
△이성우=2.4GHz ISM 대역 응용을 위한 CMOS 하향 주파수 변환기의 설계 연구
△노영호=외부 레이어 조사에 의해 자발 생성된 Ferromagnetic Quantum Dot(Co, Fe) 형성
△박석규=IV 이화에서 동작하는 4전자 C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2.4GHz 하향주파수 변환기의 설계연구
△김형준=Breeding of New shrunken-2 Hybrids - shrunken-2 초당옥수수 신교잡종 육성
△문진훈=Efficient callus induction and plant regeneration from immature and mature embryos culture of Korean wheat genotypes
△김공식=조효소 FAD가 T4파지 group I intron RNA의 self-splicing에 미치는 여제작용
△김상은=Physi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ycnoporus coccineus and Its Antitumor Activity
△임창수=Antifungal Activity of Bacillus licheniformis and Burkholderia gladioli against Anthracnose-causing Phytopathogens
△김은희=Characterization of the Cytochrome P450 2E1 Gene Promoter Screened by Suppression Subtractive Hybridization in Growth Hormone Challenged OLETF Rat
△이선호=자연 및 인공경관이 공장 근로자의 Stress와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조성호=PRML을 위한 등화기에 대한 연구
△이희규=Motion JPEG 영상 부호화기의 구현
△권식범=기목 채널에 적용 가능한 PRML 방법 및 구현
△강희범=MPEG-7 디스크립터들의 조합을 이용한 영상 검색
△김영기=고밀도 광 기록 시스템을 위한 여러 정정 알고리즘
△김정현=0.8, 1.7, 2.4 GHz 다중 주파수 대역의 CMOS PLL
△김경순=MPEG 동영상에 대한 실시간 워터마킹 기법 및 그 응용
△배주환=CD·DVD용 Digital PLL을 위한 Phase Detector에 관한 연구
△이명규=직렬 부성 계환을 이용한 V 밴드 CPW 저잡음 증폭기에 관한 연구
△박종필=마이크로스트립 라인-프로브 급전 광대역 패치 안테나 설계 및 해석
△박재연=MPEG-2 비트열에서의 인공 및 조작위치 검출을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법
△계승철=XHTML 코드 생성기의 설계와 구현
△고영관=자바 바이트코드에서 JVM 코드로의 변환
△인영희=정형적 명세를 이용한 웹 프로그램의 테스트
△강태원=위치기반 유무선 통합 물류시스템 설계 및 구현
△도창욱=모바일 장치를 위한 멀티미디어 라이브러리의 개발
△나성국=분산 실시간 환경을 위한 가상도플로이드에서의 그룹연산
△김형준=IEEE 802.11 MAC 프로토콜의 전송 성능 향상을 위한 적응적 FEC 기법
△이주민=그룹별 프리픽스 길이 정렬을 통한 균등 속도를 보장하는 IP 검색 구조
△김재완=OFDM 전송 방식의 모뎀 구현에 관한 연구
△오석운=PPGA를 이용한 OFDM Modem 구현에 관한 연구
△김희정=초음파 모터의 2상 정현파 구동회로 설계 및 시작
△원해경=레이블링기법을 이용한 문자 추출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경희=서보 구동 시스템에 적합한 와전류 제동기의 특성해석
△김지훈=IEEE 802.11 매체 접속 제어의 분석 및 구현에 관한 연구
△염기복=종이컵 내면 불량 검사를 위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의 구현
△박해민=Sugena 형태의 퍼지 논리를 이용한 도립 진자의 적응 퍼지 제어
△한태희=공진형 보조회로를 이용한 연속 전류 모드 S'-PPC 컨버터에 관한 연구
△추연식=신경회로망 제어를 이용한 유도발전 동력시스템의 최대출력 제어에 관한 연구
△오세문=플레이트거더의 전단좌굴계수 평가
△김영석=무근콘크리트의 단열엔지니어링내력 평가
△임지훈=디지털 건축의 디자인 경향에 대한 연구
△이교원=천구상 태양행로의 기본투상에 관한 연구
△김홍근=건축외관디자인에서의 환경 고려에 관한 연구
△손현덕=품질시스템 운용을 통한 하도급관리 효율화 방안
△권정민=계측적 계획프로세스를 이용한 공기지연 분석방법
△권달우=웹 기반 건축설계제도서 정보체계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유경=GIS기반 대학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김민수=현대 도시사찰 주불전의 진입부 및 내부공간 디자인 분석
△김혜영=새로운 등가축하중설계법에 의한 H형강 보-기둥 부재의 설계 적용 연구
△양문규=점원주위의 공간구성 동향 및 건축특징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박정하=CMM 개념을 활용한 건설 PMIS 평가 모델 개발 - 프로젝트 의사전달관리를 중심으로
△최태숙=WTO 체제하의 국내 건축사 계속교육체제 연구 - 기본프로그램 제안을 위한 연구
△염홍철=아크릴 에멀전 접착제의 내수성 및

경시변화에 관한 연구
△윤철용=전과정평가 방법을 이용한 카본블랙 공정의 원료 조합 모델개발 연구
△송승환=미세접촉인쇄법을 이용한 유·무기 Composite Film의 제조 및 특성 연구
△최윤희=젤라틴의 레올로지 특성
△김지연=쌀전분-xanthan gum 혼합물의 겔 특성
△오윤정=당귀, 숙지황, 쑥, 황기가 유산균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이주경=바하, 산사, 영지, 운지가 유산균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송규정=Bifidobacterium breve LMC17에서 cryptic plasmid pBC17의 염기서열 분석
△백지연=대장균에서 Bacillus subtilis Glutamy1-tRNA synthetase의 발현으로 인한 생육억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김철=이동통신 서비스 품질특성과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유상중=속성추출을 이용한 협동적 추천시스템의 성능 향상
△조갑수=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확률적 기술가치평가 방법
△염기종=Suffix Tree를 이용한 웹 문서 클러스터의 제목 생성 방법 성능 비교
△김국표=전자메일 분류에 대한 나이브 베이저안 학습과 중심점 기반 분류의 성능 비교
△이동수=팔대적 근접이웃과 격자 색인을 이용한 K-Nearest-Neighbor 알고리즘의 분류 예측 성능 향상
△진길주=모션컨트롤 카메라 크레인의 개발
△김민정=인트라 프레임의 시공간적 에러 은닉
△조중영=미분류 데이터가 분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윤성원=DCT 계수의 비트 플레인을 이용한 계층 부호화
△이수선=병렬 프로세싱을 적용한 비트맵 트라이 구조에 관한 성능 분석
△정성진=다중 프로세서를 적용한 포워드 엔진의 특업 성능 측정에 관한 연구
△이승하=JXTA 기반 P2P(Peer-to-Peer) 환경에서의 원격 쿼리알·실행 시나리오 설계 및 구현
△김은정=Scoring 알고리즘과 decision tree 기반의 결합선호도 규칙을 적용한 요약문 생성
△윤은국=이거즘 네트워크에서 우회 공격에 대한 능동형 가상 프로토콜 스택의 설계 및 구현
△김기태=쓰레기 매립지반의 지진거동 평가
△박지원=매립지 차수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임진영=지구 통계학적 기법에 의한 지반특성 해석
△오승현=신뢰성 방법을 이용한 일반사면의 안정성 해석
△지현석=변성암반내 소구경 터널의 배수 특성에 관한 연구
△진샘물=회귀분석을 이용한 수정 크리프 계수에 관한 연구
△한성국=높이가 변하는 북부반의 극한건단강도에 관한 연구
△홍아름=부모멘트를 받는 강합성 1형 거더의 비지지길이에 관한 연구
△김현민=수평보강재가 설치된 플레이트거더 북부반의 조밀단면 요구조건
△김성일=대하 축구선수의 경기력 결정요인별 인지에 따른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장경이=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양육시설 보육사의 정서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환진=오근(吳崑)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김재철=‘서방자명당구경(西方子明堂攷經)’에 관한 연구
△손순철=‘황제(皇帝) 명당경(明堂經)’에 관한 문헌 연구
△박우표=천궁(川芎) 향기액(香氣液)의 진통 효과에 관한 연구
△배성민=호도(胡桃)의 활성산소 및 활성질소 제거 기전
△임성철=고대의 경맥진단법 중 십이경맥맥진에 관한 연구
△박보경=사육탕기미방(四肉湯加味方)이 흰쥐의 학습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
△전준영=양목(陽毒)백호(白虎)탕(湯)의 이식 연구 거부반응 지연에 미치는 영향
△손회천=해동피가 collagen 유발 흰쥐의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장진영=기경팔맥(奇經八脈)에 관한 연구 - ‘난경(難經)’의 주석서(註釋書)를 중심으로-
△홍찬규=백지 향기액의 투여방법의 변화에 따른 진통효과에 관한 연구
△안병태=해간전(海開煎)의 항산화 활성 및 간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
△안중혁=갈담초 및 투여멀린 용액이 흰쥐의 Collagen 유발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정성영=유병기간에 따른 요통환자의 Ferguson 각과 요추 중력선에 관한 통계적 관찰
△김성수=가장 소합항원(蘇合香元) 향기액의 진통작용 및 경구 투여시의 수면 진정효과에 관한 연구
△김학재=스트레스와 에탄올로 유발된 mouse의 위점막 손상에 대한 귀비(歸脾)탕의 예방 효과
△최준혁=사삼백문동탕이 Indomethacin으로 유발된 mouse의 대장 점막 손상에 미치는 영향
△정용래=마왕퇴(馬王堆) 출토 의서 중 ‘음양막사후(陰陽厥候)’에 관한 연구 - 장상(臟

象)학설의 형성연원에 관하여
△유기량=산사의 Butanol 분획이 PGE2α-유도 혈관평활근수축의 억제에 미치는 신호전달 연구
△백현=보혈안신탕(補血安神湯)이 SK-N-SH cell line의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발현에 미치는 영향
△김희화=Regulation of IGF-I expression by Scutellaria barbata D. Don. in human leiomyomal cells
△이태재=기경팔맥(奇經八脈)의 맥 진단법 기구(氣球) 구도맥(九道脈)에 관한 연구 - ‘신경통고(神經痛考) 맥설(脈設) 하위기경지맥(何謂奇經之脈)’을 중심으로
△김석하=The antiplatelet activity of Dangguijakysan is mediated through inhibition of phospholipase C
△김재우=매양한 흰쥐 대뇌세포의 저산소 및 저당·저산소증 모델에서 소합항원의 세포사 방지효과에 대한 연구
△김경호=The antiplatelet activity of Geijibokryunghwan by inhibition of phospholipase C and TxB2synthetase
△한지영=Inhibitory effects of Scutellaria barbata D. Don. and Eutonymus alatus Sieb. on aromatase activity of human leiomyomal cells
△공대중=Effect of Do-In(Prunus persica L. BATSCH) water extract (PPE) on concentration of extracellular acetylcholine in the rat hippocampus
△최병희=Effect of the Geijibokryunghwan water extracts on stimulus-induced superoxide generation and tyrosyl phosphorylation in human neutrophils
△박수연=Effect of Buthus martensii Karsch on aromatase activity and cytokine-induced NOS and NO production in osteoblasts and leukaemic cell line FLG 29.1
△최성욱=안와관골 복합체 골절 후 발생하는 안와하신경의 손상
△김경원=일반적 급기 환자군에 대한 직실전 자궁적출술의 임상적 교찰
△김요창=Relationship between Topographic patterns and corneal astigmatism in Korean
△전민호=Ca²⁺ CHANNEL SUBTYPES IN SYMPATHETIC NEURONS OF THE RAT MAJOR PELVIC GANGLION (MPG)
△박준홍=MODULATION OF Ca²⁺ CURRENTS IN THE RAT PELVIC SYMPATHETIC NEURONS VIA GABAB RECEPTOR ACTIVATION

영상정보통신대학원 (18명)

△진승현=혼잡 두개 별 두개
△박남원=(Documentary) - 최보은을 만나다
△강민석=영화제작과 법률 및 정책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
△이성기=1+1=1
△이영혜=Earth
△차수현=Unidentified
△노기석=차량 트래픽 자동 생성 시뮬레이터
△장동훈=SnowBoarder’s Dream !!
△이화정=삶의 끝예 (Circle of life)
△황오연=온라인 3D 게임 시스템의 데이터 중심 설계
△이금희=지면성질에 따른 캐리터의 기본 걸기 동작 생성
△김필진=GMM과 Mobile를 이용한 모바일 컨텐츠의 설계 및 구현
△김대용=GMPLS 도입에 따른 기술 및 시장 동향 연구
△신정훈=VPN의 시장 동향 및 구현 사례에 대한 연구
△한영택=무선 LAN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구축 사례 연구
△윤세양=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의 Perimeter Security 구현
△이진호=기업 망에서의 메트로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도입 방안 연구
△이종영=Web-based Network Traffic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불교대학원 (13명)

△이종성=법화경의 관세음보살 연구
△김동연=원증국사 보우의 선종에 관한 연구
△정욱원=영철 실화를 통해 본 원력에 대한 연구
△조미영=중년여성 잠재력의 복지 자원화를 위한 연구
△박현자=불교인의 복지의식과 사회봉사참여에 관한 연구
△박기용=초기불교에서의 효 사상 연구 - 아합경(Agama sutra)을 중심으로
△서영준=불교적 상담모형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청소년 상담을 중심으로
△이정분=저소득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 관악·금천구 거주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김옥선=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 군포시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수영=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재교육 및 소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회복지관의 근무자를 중심으로
△심한수=조선세종대 국상의례 연구

△김희경=현대 한국인의 죽음에 관한 인식과 태도
△강성경=청소년의 죽음관 조사 연구 - 종교와 죽음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행정대학원 (64명)

△김기영=관광행정조사 확충전략에 대한 연구
△장두영=군 환경 보전에 관한 연구
△김호근=한미 행정협정에 관한 연구
△임영방=마약류범죄 통계정책에 관한 연구
△최태호=한국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양해경=여군 초급간부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
△성정용=철도공무원의 행정윤리관에 관한 연구
△백찬중=통일이후 남북한 지방행정의 통합 방안
△이혁중=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박홍찬=통일한국의 보존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이범용=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방안
△임병태=공연예술 재정지원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재중=방사능 물질 정비 관리에 관한 연구 - 군 장비 위주
△최계명=한국의 전정지도 체제에 관한 연구
△안잠석=북한 김정일정권의 대남전략·전술 연구
△김재철=한국의 항공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안장근=한국의 국방조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신호=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안병규=동북아의 해양분쟁과 한국해군의 대비방안
△이환준=한국해군 잠수함 전력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민기=한반도 전구에서의 미 증원전력 전개에 관한 연구
△이진성=정보화시대 한국의 군사혁신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임치규=통일을 대비한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신봉기=한국 신세대 장병의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갈등관리전략의 실증적 연구
△강성봉=민·군 결합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군사 규격 완화형을 중심으로
△권윤태=한국 관료부대의 통계에 관한 연구
△손상철=민간경비인력의 전문화에 관한 연구
△석천호=경찰관의 충거시태 태도에 관한 연구
△이형표=한국의 뉴테러리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식=소년비행의 가정환경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조영일=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법활용에 관한 연구
△김기영=한국 경찰공무원의 시기양양 방안에 관한 연구
△김인택=한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봉하=죽절심판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두철=경찰교육훈련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진경=결손가정이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민용=대한학교의 학생범죄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학=국제행사 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연규용=한국의 시큐리티 산업에 관한 연구 - 민간요건호 활동을 중심으로
△정원우=군 수사제도에 관한 연구- 군경찰과 군사법경찰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기홍=한국의 재난관리체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긴급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최광호=한국교통사고의 실태와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지도단속을 중심으로
△최광식=괴지사 신문기법에 관한 연구 -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법을 중심으로
△심재형=경찰과 지역사회의 합동방법활용에 관한 연구 - 경기지방경찰청 관할 파출소를 중심으로
△김원춘=군인 퇴직연금법 개선방안 연구
△임미선=국내인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윤인숙=조계종 승려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
△홍성수=청소년 흡연실태와 그 예방에 관한 연구
△정상인=노인학대의 문제점과 불교적 대책에 관한 연구
△임경자=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자=뇌졸중 장애인을 위한 재활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백오영=장기요양보호시설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 방안 연구

▶8면으로 계속

▶7면에서 이어짐

△위안균=취업모를 위한 직장 보육서비스 인식에 대한 연구 - 소득수준별 비교 연구
△박지영=장애이동전담시설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소준자=불교지원봉사활동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유광현=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민간차원의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이정미=방과 후 보육 시설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연구 - 강동구 G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이진경=보육시설 종사자의 장애아 통합보육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구립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
△이동화=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 성북구 방과후교실을 중심으로
△안명숙=어린이집의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 송파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유남경=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육수동 Y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경영대학원 (41명)

△김성진=국비별 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한인=e-비즈니스의 전략적 제휴에 관한 연구
△김성대=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연구
△김정희=국내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사례에 관한 연구
△박종훈=e-Marketplace를 활용한 전자무역에 관한 연구 - e-AMP와 c-tradeworld 구축사례 중심
△이학수=한국 사료산업의 구조개선 방안
△채미란=T사의 신제품개발 성공사례 연구
△정승식=히딩크 리더십의 특성과 군 리더십 연구
△정영홍=외제 화장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박수홍=기업내부 마케팅에 관한 실증분석 - S사 중심
△허규일=신세대 병사에게 적합한 군 리더십에 관한 연구
△김억곤=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김용택=개정 군인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준용=국방업무 담당 육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방안 연구
△조위훈=리더십 향상을 위한 훈육방법 연구 - 학사 사관후보생 과정을 중심으로
△이석훈=지휘통솔 교육의 발전 방안 연구 - 3사관학교 장교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최영철=S은행의 신용카드 연체비를 감축 방안에 대한 연구 - 6시그마 경영기법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최정철=청과물의 브랜드화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브랜드 이미지와 구매태도를 중심으로
△이재경=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육군 보급창 군무원을 대상으로 배대 - 구조주의 중심으로
△김미희=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분석적 고찰
△김배영=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제도 연구
△오종춘=부가가치세 면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명현=원가계산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정덕진=ERP시스템 도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성공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조보현=직업군인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행=부동산서비스업의 종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두=국민주택기금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강은주=부동산 권원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임성균=부형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지적자산을 중심으로
△민광남=공공임대주택 제도에 관한 연구 - 공무원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천우식=부동산증권화 제 제도의 비교 연구 - ABS, MBS, REITs, CR REITs를 중심으로
△조선기=호텔산업의 고객서비스혁신을 통한 고객만족
△임연=호텔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화웨이등을 중심으로

△홍흥은=서울시내 특급 호텔의 경영분석에 관한연구 - 국내 다국적체인호텔과 독립경영호텔을 중심으로
△최영근=은행 프라이빗 बैं킹의 발전방향 - 신한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대학원 (105명)

△변주현=교원의 교직윤리 인식에 대한 연구
△김종석=초등학교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 분석
△김인근=교육정책에 대한 교사의 수용수준 분석
△이재우=중학생의 학급담임교사 선호에 관한 분석적 연구
△강현주=생명존중에 대한 유아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류혜경=초등학교 학년전담식 담임제도에 관한 교사인식 분석
△김영아=불교 생령 존중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연구
△박사빈=생산적인 아버지 역할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과의 관계
△박옥민=미래의 꿈 그리기 프로그램이 진로성숙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김귀자=자폐성 장애아의 방장에 형태적 장애와 일반 학생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안정선=자타카(Jataka)를 통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 N.I.E 를 중심으로
△장용희=유아의 동작활동이 신체적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현=CD-ROM 활용과 동화책을 통한 연계 활동이 유아의 언어 및 사고능력에 미치는 영향
△도혜정=동화 시물레이션의 활용이 유아의 언어 이해력과 이야기 구성능력에 미치는 영향
△안정희=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대인불안 및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염승아=글 없는 그림책과 음악의 통합적 접근이 유아언어의 이해력과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이용민=교과생이 기대하는 상담자로서 학급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조사 연구 - 인양시와 군포시 소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윤주연=오일러 상수
△정효윤=2차 방정식의 분류
△유남중=김달진 시문학 연구
△표찬희=장애령, '전기' 연구
△방지영=주방안의 애정적 연구
△안정희=한국 거미학의 연구사
△조윤주=전세계 독거미루 목록
△조희=초급 중국어 교화에 관하여
△김희정=허난설한 한시의 소재 연구
△서영실=로맨츠 다양체의 곡선 이론
△윤진=아성의 '기물' 삼부작 연구
△정성운=신라인명의 차차표기 연구
△최정윤=회재(譚齋) 이언적의 정치개혁사상
△백용규=경주 지역의 마을 이름 연구
△손옥희=독서지도의 효율적 방안 연구
△최윤석=조선 후기 기인전의 양상과 특성
△심지영=현진건 단편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윤미자=조선후기 사노비 지위의 변화 연구
△김정연=조선초기 염의 유통 체계와 그 실태
△김혜림=XML 기반의 사이버 법당 시스템 구현
△조영중=환경윤리교육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유선아=웹기반 어린이 건강 관리 전문가 시스템
△주석호=수학사를 이용한 공통수학 학습자료 연구
△유영수= '격류(激流) 삼부곡(三部曲)'과 '홍루몽(紅樓夢)'의 비교연구
△김영우=수운(水雲) 최재우의 사상에 나타난 사회개혁방안
△김영선=성장소설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법
△정미실=과제중심 협동학습 지원 환경 설계 및 구현
△박경우=초등학교 사회과 ICT 활용교육에 관한 연구
△박동환=문촌 이집의 시문학 연구 - 교유시를 중심으로
△박소영=영어 사전교육이 초등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
△이미영=도시화천에 관한 연구 - 수원천을 사례지역으로
△신익수=위즈워스의 '서시'에 나타난 생태주의적 사유
△이성우=한국산 왕거미과(Araneidae)의 분류학적 재정리
△박용미=시 교육론 방법론 연구 - 신동엽의 시를 중심으로
△박병성=한·일 관용구 대조연구 - 신체 관용구를 중심으로
△최나주= '도초(道草)' 연구 - 갈등을 통한 사상변화에 대한 고찰
△김양희=조선시대 관화에 관한 연구 - 민속관화를 중심으로
△박재민=중등수학에서 Excel을 활용한 수학 모델에 관한 연구

△양승헌=고분벽화와 민화의 현대적 수용 및 응용에 관한 연구
△이준문=한국전시소설 연구 - '전시한국문학선'을 중심으로
△이준석=영어 학습자들의 연령별 학습동기와 태도에 관한 연구
△전문희=태권도 선수들의 참여동기와 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최은경=황순원 7인의 후에 연구 - 인물 분석을 중심으로
△권진경=영어교과서 문화내용 분석 -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김산주=고등학교 일본어 교과서의 어휘별 약엔트에 관한 연구
△이현아=협동학습을 통한 수학 학습부진아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장재영=미국혁명기 공화주의 사상의 기원과 형성에 대한 일연구
△조나영=수확화 활동을 통한 중학교 기하 영역의 학습지도안 연구
△이용주=영어교과서 기자재를 이용한 군 정보화 교육의 개선 방안
△홍세영=구성주의 원리를 적용한 웹 기반 컴퓨터개론 강좌의 설계
△박영석=등반에서의 고도에 따른 체력 및 생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
△이혜숙=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의 시 교육 방법과 실제
△조병선=조선후기 중인층의 사회적 변화 연구 - 의·역관을 중심으로
△조지유=흥미로운 지리 공부를 위한 새로운 학습교재 개발의 필요성
△이주현=현대 일본어의 신어 고찰 - 유형적 분류와 조어법을 중심으로
△강민경=Mossbauer 분광법에 의한 약수에 포함된 Fe 이온에 관한 연구
△박원일=보건교사를 위한 XML기반 스포츠 크리나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인현정=활동적 체협학습이 수확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 및 활성화 방안
△한세정=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생물과의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이한신=지형도의 시간·공간적 분석에 관한 연구 - 양산천을 사례지역으로
△마종철=제7차 수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통계교육에 관한 고찰
△이법영=Mossbauer 분광법에 의한 황도 내에 함유된 철의 원자가 상태 연구
△관영주=한국어와 영어의 인지관점에 대한 고찰 - 시간간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인화진=교과서에 나타난 복합동사 고찰 -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심영식=우리나라 재배 고추와 오이에 발생하는 식물세균병과 이에 대한 방제
△황준원=도시와 자연의 이미지를 통한 조형성 표현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은정=천단강성(天端剛成)의 여성상 - '이두의용자' '살국' '산'의 음'의 비교를 통해서
△신현자=중국어 동빈식 이합사의 특성과 용법연구 - 한국어와의 대응형식을 중심으로
△장석호=고급미술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키치 - 키치문화 비판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신보영=고등학교 고소설 교육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은정=현대의 핵가족 내에서 자녀인성교육 방안 연구 - DURKHEIM 이론을 중심으로
△한미리=중학교 국사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 연구
△이현성=중국어 수업을 위한 한자교수법 - 외국어과 교육과정(Ⅱ) 기본어휘표를 중심으로
△임오실=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어휘 분석 -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염기철=한국어 조사 '이·가', '을·를'의 기능과 의미 연구 - 격조사의 설정 여부를 중심으로
△나현주=역사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연구 - 경기도내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최희준=멀티미디어 CAI의 개발과 활용 효과에 관한 연구 - 중학교 3학년 과학 '일과 일물' 단원
△고경아=회화에서의 리얼리즘 비교연구 - 조선후기 풍속화와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를 중심으로
△김종선=시지각적 표현력 향상을 위한 소묘 지도 방안연구 -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를 중심으로
△전용준=계열별 수학교과와 타 교과 성격간의 상관관계 - 고등학교 2, 3학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최은희=초등학생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실태와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조사
△김정은=표현력 향상을 위한 발달 단계별 미술감상 지도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중학년 중심으로
△지지영=영양교육 실시교과 및 실시교과 초등학생들의 영양지식·식행동 및 영양소 섭취 상태 비교연구
△박상현=초등 미술교육에서 레지오 에일리

아 접근법의 효과 연구 - 초등학교 5학년 소집단을 중심으로
△박유리=컴퓨터를 활용한 학습효과 개선 및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 고교수학의 산포도와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박혜경=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한 집합 단원의 ICT활용 교수·학습 설계 - ICT 활용 교수·학습·모형 및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김진협=Inhibitory Effects of the Coenzyme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on the Group I Ribozyme Splicing - Group I Ribozyme Splicing에 대한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의 억제 작용

언론정보대학원 (26명)

△이진영=법화경에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과정 연구
△김미정=저작권 제한 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이영경=대안매체로서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병학=지역신문의 지방선거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호천=정부부처 인터넷 서비스와 국민의 알권리 신장의 상관관계 연구
△정수진=한국 정치광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선거공명제도를 중심으로
△강성철=보도폐허구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언론평의회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영삼=신문보도 언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일간지 기사의 문장적 어휘를 중심으로
△김태섭=공격적 정치광고의 메시지 양이 수용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후보자의 이미지와 투표의도를 중심으로
△하회란=지역별 수용자 정보 추구 성향의 차이를 미디어 의존 이론을 통해 분석한 연구 -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 보도를 중심으로
△고영우=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원의 정보화 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이봉식=온라인 광고의 침입성에 따른 광고 효과 연구
△유성훈=스포츠 스폰서십의 유형별 특징에 따른 기업의 홍보효과 비교분석
△김원석=제품구매에 있어 광고디자인이 소비자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종근=소비자 가치유형과 광고소구 유형에 따른 광고효과 연구 - 건설광고를 중심으로
△김종민=경향 언론 홍보의 발전적 방안 연구 - CRM과 개방체계론적 경향이미지 분석 중심으로
△윤광훈=경찰의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중심으로
△장영채=소비자의 제품 관여도와 소구형태가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증권사 광고를 중심으로
△정일태=프로그램 홍보활동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 KBS TV 드라마를 중심으로
△조병홍=우리나라 표시광고의 규제 및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 유사투자자문회사의 신문광고를 중심으로
△조혁=TV프로그램에 대한 관여와 광고의 일치성 여부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기억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종근=한국의 비교광고 규제변화와 발전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유지희=기업브랜드와 개별브랜드의 인식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관련성으로 하는 태도변화 중심으로
△강성욱=이동용 게임 특성에 따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2001년 출시된 국내 아동용 게임에 대한 마케팅 현황을 중심으로
△이영란=서적의 표지디자인과 소비자 구매 행태에 관한 연구 - 고등학교 영어 참고서를 중심으로
△홍성규=중소형 보험사의 정보시스템 경쟁력 제고에 관한 연구 - 보험사 정보시스템 현황비교를 중심으로

산업기술환경대학원 (34명)

△신희만=종합유선방송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손지연=초등학교 급식에 있어서 감치의 인식 및 선호도
△김도영=UML을 이용한 .NET 기반의 공동구매 웹사이트 구현
△박신규=LCos방식을 중심으로 한 HD급 Digital Display에 대한 동향
△조현재=CORBA를 이용한 웹 기반 위탁감사 정보 전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유재형=기업의 제조물 책임법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임기량=지하철 박스구조물의 수화열 제어 및 온도응력균열 저감에 관한 연구

△박영근=이동 네트워크 시스템의 중간 에이전트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연구
△최육진=국내 중소기업설업체의 CM와 전략
△김도형=주방 공간 디자인 개선을 위한 연구
△신광희=섬유보강공법과 강관보강공법에 관한 특성 비교 연구
△염은성=중수처리 시스템에 의한 군의 물절약 방안에 관한 연구
△김도산=eCRM의 효과적인 구축 연구
△은희숙=원격각도를 위한 Q&A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황연수=의료기관간의 영상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안 설계
△한정철=전파통신 서비스의 품질개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지호=전자상거래에서의 EMV카드 거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방세중=가상 프로토타입 구축 구현을 통한 최적 침입탐지시스템 개발
△정규석=아울퍼스 변압기의 채용에 따른 전기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황상규=뷰와 로직과 관련된 웹 응용을 개발하기 위한 표준 자바 패키지
△김현섭=방송자막 생성을 위한 하드웨어 독립적인 에디터의 설계 및 구현
△여정수=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을 위한 실시간 평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현석원=통신시장 변화(유선-무선)에 따른 유선통신사업의 CRM 현황에 관한 분석
△임태민=질화알루미늄기관(AIN)에서의 산화연함유 저함폐리스트 증착에 관한 연구
△이승재=XML 기반의 이미지 상호 호환적인 전자부품 카탈로그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최창식=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CDMA 시스템의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김용득=PCS - IMT-2000 기지국용 단일공진 광대역 Microstrip Array Antenna 설계 및 단일 방사소자의 제작 및 특성 분석
△김영민

△박승헌
△김영아=단체급식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임주=양식조리의 기본 sauce와 향신료 및 조리된 식품의 식감향상에 관한 연구
△서덕훈=Hydroxide계 및 Hypochlorite계 화합물의 독성화학작용에 대한 제독효과 연구
△박현욱=게임콘텐츠산업을 위한 비즈니스전략 구축에 관한 연구
△신재희=미국과 한국의 3D Animation 산업의 발전과 현황 비교 분석

문화예술대학원 (18명)

△김용구=이시영 시 연구
△이은경=박완선 단편소설연구 - 주제적 양상에 따라
△김은경=김유정 소설연구 - 현실인식과 욕망구조 분석
△민설아=청소년 드라마 연구 - '학교'를 중심으로
△강운선=이양자 소설 연구 - '나비터림' 유희'를 중심으로
△한순모=이청준 초기소설 연구 - '퇴원' 병신과 머저리'의 성격분석
△박명규=택견을 활용한 배우 신체훈련의 가능성 연구
△박재호=다큐영화 '보바들의 행진' 제작에 관한 연구
△박은아=재즈댄스(Jazz Dance)의 대중적 수용 방안에 관한 연구
△최영조=영화의 포스트모던 양식 연구 - 장·피에르 주베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박지현='8월의 크리스마스' 텍스트 해석 -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박원욱=배우의 방언구사(구사)및 방언 교정에 관하여 연구 - 경남 거창지역 방언을 중심으로
△이덕형=공적자금이 한국영화산업에 미친 영향 연구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공고를 중심으로
△경홍=송광사 가람배치의 특성에 관한 연구
△김기상=한미수선원 도량량타의 전통 재현과

상징성
△김영미=한역경전(漢譯經展)에 기록된 악기에 관한 연구
△오현주=수심가의 창법 연구 - 김정연의 창법을 중심으로
△정승호=현악연산회상과 구례(求禮) 향재(鄕制) 줄 풍류의 비교 연구 - 계면, 양청, 우조환입의 가야금선율에 기하여

국제정보대학원 (13명)

△김정훈=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이정석=정보사회의 있어서 위험관리
△양승호=침입탐지 시스템의 평가방법과 발전방향
△신성철=정보보호를 위한 위험분석 방법론의 고찰
△이성중=대기업 환경 하에서의 효율적 정보보호 조직
△김민희=공인인증 기관을 통한 전자공증 서비스 연구
△최승식=IT시스템 재해복구 계획과 방법론 - 금융기간 중심
△정성렬=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정책 및 관리 지침에 관한 연구
△박성기=WINDOWS 2000서버 보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이윤석=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네트워크 시스템 위협요소와 대처방안
△손운승=블루투스 환경을 위한 보안모델링 - Bluetooth버전 1.1을 중심으로
△김종필=e-business환경하에서 컴퓨터 포렌식스를 기반으로 한 침해사고 대응방법론 연구
△박홍석=동북아 해양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해군력 발전 방향

사회과학대학원 (18명)

△김성철=병원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김윤현=행정지도자와 군 지휘관의 리더십 비교연구
△윤경중=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규무제도 발전방향
△조희식=경주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연구
△박원일=물류비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 - 포장지역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김현상=중소기업의 회계정보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 포장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엄세용=국내기업의 합리적 설비보존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하해준=환경변화에 따른 LPG판매의 수요창출에 관한 연구 - 포항·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최영택=법인세의 기간배분과 방법에 관한 연구
△이창홍=균형성과기록표에 관한 연구
△임현상=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군사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배은숙=불교 호스피스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모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섭=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타순=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경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권윤식=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위험성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 경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김현태=불교계 노인 Terminal Care의 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 타종교와 비교연구를 통해
△정정숙=농촌지역 노인의 건강문제와 의료복지서비스의 과제에 관한 연구 - 포함시 읍·면을 중심으로
△박현숙=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식 연구 - 울산광역시시의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p>학사학위 (총4,315명)</p>		
<p>불교대학</p>		<p>문과대학</p>
<p>불교학전공</p> <p>강창구 임영신 김소영 이동효 안미라 김현지 정순영 김영철 김효성 양정옥 박미정 조 리 승미희 박보선 김종범 김덕소 장세훈 최어진</p> <p>인도철학전공</p> <p>최승일 홍진호 정문엽 노창현 김성훈 이만오 김현덕 심 일 이재춘 최지연 김영은 최강선 김현정</p> <p>선학전공</p> <p>연미경 강일호 김양숙 김경미 김향숙 김묘연 박동욱 박혜진 양연순 이자형 김수영 최영숙 정동일 김다정 이혜정 이홍식</p> <p>불교학과</p> <p>안병욱</p>		<p>최 혁 이형준 박기수 하 원 박이름 노홍래 김태화 이택산 김영진 신동욱 김대현 최원준 박병필 손성필 이효재 신윤숙 임성민 황지원 한해정 박미희 한진호 서해진 이선영 박은정 조항순 송경아 연홍자 신주연 김미주 박미자 이민정 백진영 김소연 이은정 정지현 김유미</p> <p>철학전공</p> <p>최대현 한태복 노동욱 박영식 김의재 신기철 한영수 박세린 류태우 유미란 강선영 곡민정 이현아</p> <p>▶9면으로 계속</p>

▶8면에서 이어짐

윤리문화학전공 정일권 김용원 전철범 송해경 유진주 문정원 정현주 강경화 이지혜 박소연

국어국문학전공 정성민 윤철용 민경진 김복규 진병훈 조현태 조정수 장은정 이선희 박상숙 윤가영 유정선 노설아 장보영 김지원 최은희 정에지 한동훈 윤미경 최새미나

문예창작전공 설현수 유승현 김대성 김승희 김지혜 배희정 이하경 김종길 함정선 조복래 양신애 허주희 한지선 위수정 이은영 박수령

영어영문학 엄선정 최진욱 정현수 이승구 윤정식 박용우 송길영 김유신 방규준 선경문 윤상철 김태재 최정민 조선행 민중화 이진우 이장혁 이정원 최인철 한수경 채수환 김지영 조영주 이연숙 옥미란 서희복 신지는 최분정 전은희 최광석 김미영 이미진 정형륜 권선희 이경아 임현희 박지현 정은영 오진욱 주현주 김 준 김유미 정승아 윤소진 김은실 진승현 마국의 박현정 박동택 김태훈 강보람 김수연

독어독문학과 임윤용 모승중 이준규 황동모 정광호 노혜선 김보영 손민정 유 진 황인경 최승희 박승이 신현주 김현희 황해경 김지영

일어일문학과 김경호 이재하 김상희 김지연 남창일 이도영 유상백 허 용 김가현 하윤철 현나승 조해미 방희준 김희연 기서영 김보석 윤자영 류태진 김 영 이윤경 이지영 김유이 백현정 손호선 우진영 장미희 유혜리 유보영 최연주 유지희 김시원

중어중문학과 신준승 이창훈 홍성학 신현철 김병준 삼전섭 오정희 성현옥 장서희 이덕현 김미숙 김혜영 송영주 박래권 윤은인 이경희 이규선 장미현 장길순 김여진 송은아 서영실 김민아 이지은 강희석 이동은 최아람 정효선 형태희 장극강

김형남 윤대선 권희태 김성재 신준영 한광현 정선기 김영환 강병석 강태욱 오규식 이은정 윤종민 성윤숙 이정민 고상욱 이정연 박동민 조혜은 이양희 김유경 박나라 교교영

사회학전공 박현민 김 단 진진숙 이수희 김지희 김두연 채정길 최재원 배현욱 전선유 김경준

사회학과 김필성 광동석 정문섭 김주환 이남주 민동철 김해정 김금영 우선희 이혜연 김창리 권수연

경찰행정학과 이일영 김순석 박희준 이철희 정화수 안수환 김 진 김수덕 채범주 윤형식 김현준 정용배 안지영 안 철 최상락 함진용 류재욱 장진환 심은석 이희주 최혜란 홍승아 김종신 유효준 김성원 조은호 강인찬 김태훈 김선영 최용호

신문방송학전공 천동혁 박선영 광병관 이승도 이태훈 이용재 안정용 이수원 김용환 류재욱 장진환 심은석 이희주 최혜란 홍승아 김경희 공병락 신혜은 박지혜 권수이 이현주 김혜린 정민선 윤미화 방주미 김유나 신문선 김소라 이진욱 고희원 박선영 이수진 서연미 임동규 이태만 원수만 김지현 이순우 오태정 조은지 서경아 남효진 손병기 박영숙 손승연 김경아 박순영 박운정 김경미 정주영 김주리 김윤정 박현아

국제학전공 이건호 유승우 임선영 강윤경 김경은 김현진 박연숙 임남영 오정수 손수정 양석희 이원섭 최희선 정영옥 전선미 김태진 위은혜 박지운 김성아 이주현 김선정

경영대학

경제학전공 양일석 신재정 차일진 구광국 조준혁 권영재 황규봉 정지선 김영필 노형준 조민우 김규종 송선기 박상준 손동명 김택수 예상현 엄기훈 조문기 채성욱 양두형 김덕구 남승돈 김준용 최희준 최지선 임승학 성영욱 박현선 박소현 이광민 심종교 박병운 문영득 송민정 서수석 김광영 최선영 최수미 신재은 이상진 서원식 임정영 김진영 이정재 이병용 강성권 유은정 신상철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경영학전공 정원희 이우진 나동현 양명규 황영익 김병수 이정훈 정기홍 신재호 원지선 민홍기 김민철 이봉찬 유성원 정규상 임택터 이창길 류동훈 이창민 이재원 이장훈 김일국 박경태 장성민 나영선 정도현 홍민석 박철희 김해성 윤영종 김성민 이진석 이무열 김성도 박병용 류승규 장중년 임 혁 양만영 장완용 박재수 김상현 정민호 김보성 이희주 신재호 오승준 박재영 이형근 성원재 이학수 송호근 이윤기 홍흥석 김도근 권기섭 진영우 임일두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경영학전공 정원희 이우진 나동현 양명규 황영익 김병수 이정훈 정기홍 신재호 원지선 민홍기 김민철 이봉찬 유성원 정규상 임택터 이창길 류동훈 이창민 이재원 이장훈 김일국 박경태 장성민 나영선 정도현 홍민석 박철희 김해성 윤영종 김성민 이진석 이무열 김성도 박병용 류승규 장중년 임 혁 양만영 장완용 박재수 김상현 정민호 김보성 이희주 신재호 오승준 박재영 이형근 성원재 이학수 송호근 이윤기 홍흥석 김도근 권기섭 진영우 임일두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국제통상학전공 김영곤 박영목 김태균 김봉준 김경옥 이석주 이종민 김기태 조성희 김철원 김규남 조성문 최진욱 김용준 송철훈 권운원 정유선 최은정 서 희 차정필 김재별 황지원 이진아 박호선 고은정 장석현 김정민 이경환 조인재 임미화 오은주 장아람 박찬준

최선에 임미경 김정화 이정화 신미정 서한솔 김민숙 이수영 이준경 조은희 이희연 윤미정 최인혜

생명자원산업유통학전공 김중범 이영진 이주희 양지선 홍혜진 임용선 조석재 박성정 최미옥 류재인

생명자원경제학과 김동민 신호선 홍정학 김병삼 광대영 박지영 김은혜 유소정 박규현 정유진

공과대학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전지공학전공 박성욱 정호준 김유연 차형철 신하철 백용원 이재홍 김정철 김승현 이윤배 김성원 최상국 송재혁 정방훈 김태섭 정중수 한만재 한승호 이상철 김영준 백진수 임춘수 한영덕 김효영 문용섭 김형석 김기호 김대명 김대영 박상규 김성하 노훈희 김동규 이병호 김봉준 이태영 하현대 서재홍 김태란 김동혁 윤지현 김기덕 유승철 김정환 서창형 김태완

이선형 오인교 이재만 나중태 설기환 박성기 한승복 김재환 이지훈 김한섭 최완식 손달승 이석훈 조복분 정도경 박성현 강기준 이규환

컴퓨터공학전공 구인회 하 율 이현철 송수영 최인영

정보통신공학전공 이주형 손민석 박영진 조은철 정현성 이윤진 김희정 윤해림 설지훈 윤옥연 김해진 배은영 김중우 신혜진 김동규 강인경 김지영 김경희 임형애 이기범 정 원 박인숙 김정현 안대중 김동숙 김경섭 장민석 안재필 진상희

산업공학전공 한범준 곽노철 심홍선 이종찬 류시문 이강일 홍동의 이승재 이성근 심상희 김종택 박성호 원승현 박은용 강일룡 유신욱 김경택 염태희 정창모 윤일환 안세진 강선호 송준호 원동우 황길석 강은혁 강경학 허준성 김성원 이주환 이경석 권준호 민경훈 권영준 박지영 황재순 안운환 오동익 송지령 박선수 고유미 김재은 김한복 김해진 유창성 심보경 최일권

정보시스템전공 백광현 오내영 노윤경 최정미 이경은 김은진 배지연 김현주 임지연 김희영 황승용 최이규 김주현 손경원 박래성 손준호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상현 이용도 김중훈 이우섭 이대근 권용문 김병영 윤재경 김주영 한 진 조은주 김연정 박은혜 엄명희 이효정 신동재 강민영 이희진 안미영 이희원 박해남 김진숙 황미옥 이가람 최 영 박지현 정희원 송해림 김민형 정진화 오나연 지수경 이지혜 정연화 전효영 김은정 최정복 유주하 강보라 홍미영 문공주 최다래 권지은 최정은 윤지희 김해정 김지선 함수현 류진영 박선아 오리사 황지은 문주영 임재대 박기범 김원식 박연정

영어교육과 김 중 안영호 윤영호 한규환 임신일 최은희 조은성 유승은 송지현 공명미 배경옥 정민정 한순희 류태현 윤영경 김미희 이효은 이민정 김아름 진혜선 임정옥 조영주 이승아 홍기운 박효숙 정영희 신애영 정미선 조미희 윤은교 정순영 김경희 이현정 황정은 김소연 노수현 홍서연 박은영 이인영 이정아 고지은 권희진 정복희 은주희

교육학과 이봉호 하헌정 강상남 박인희 김희정 김두심 김 난 규영미 이지영 이선우 김동미 김나연 이미희 배수연 강승화 김지희 남윤일 오현진 유정옥 이혜나 차은주 황수현 송재환 장혜선 장진석 김예석 박창욱

지리교육과 박정호 이진희 지영호 양성혁 이용규 김준미 임소현 신지희 최유리 박영선 조이빈 김지현 진은혜 최가영 조선영 최미경 이안희 백주영 이준옥 김경환 김주연 이재영 최정수 이방광 한수진 박경남 김미주 연인수 조서희 박지연 최희희

수학교육과 유재광 이강희 정석중 채동규 최경태 임은희 김지연 배미경 이화정 모경선 이재남 이정원 김교립 이선영 서효정 여영일 신선미 이정은 유순식 한혜정 서영희 이인희 박태완 신현주 임유경 김기범 이희연 양승희 김경미 한 정 송지희 이지영

가정교육과 구선정 한주희 황지영 이소연 임영애 이경주 정지운 나정선 이미정 김민혜 차미란 김지영 양서희 서미림 설지연 이경희 정현구 김현진 신유경 최현주 김지선 최상은

체육교육과 최홍석 황기삼 정영일 천용준 정기홍 김창섭 김경호 박성준 임규철 김주원 정민준 하용석 박찬수 강경호 유동우 김중문 이상인 정병무 전문준 심희동 최형욱 최동규 최희삼 최정재 이창우 김장섭 문종호 정장현 심재혁 백승훈 우승희 황정석 민승애 황산미 장도현 임하나 전한수 인순영 박주희

예술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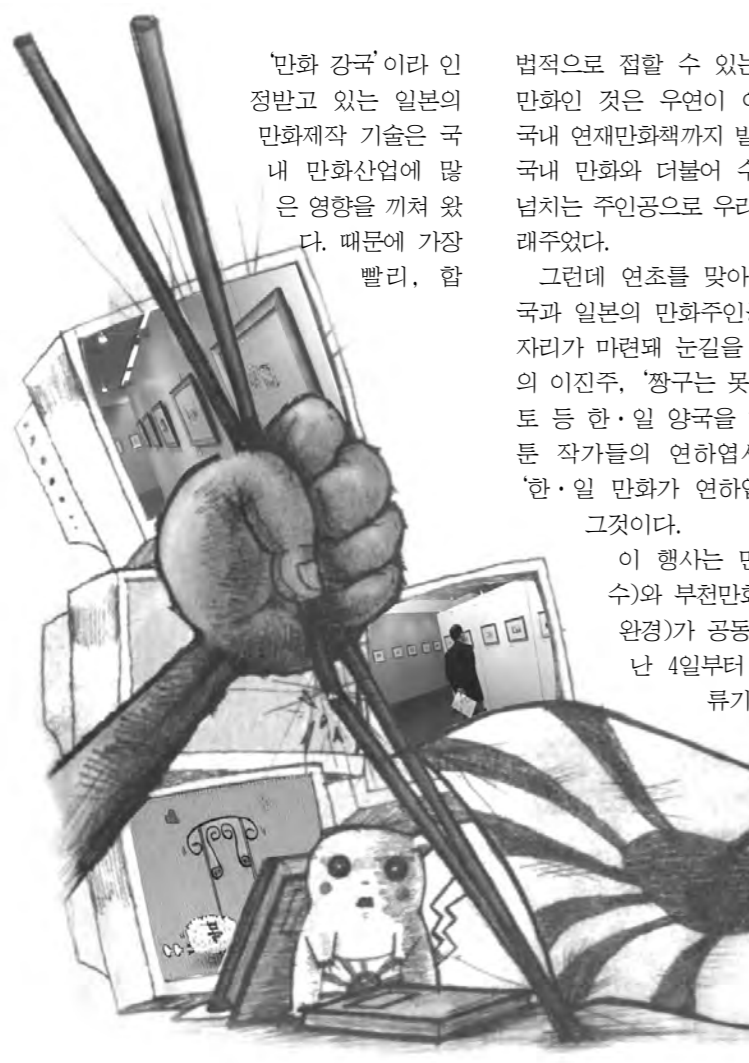
불교미술전공 임동일 임 훈 박철중 조은주 한세영 유지선 박근덕 홍기진 김은옥 이은정 신은영 우성균

한국화전공 박병일 박미진 박진희 안혜선 조영림 김현정 김지은 박경림

서양화전공 신덕환 성창숙 권순영 최준혁 최은미 최현지 신영숙 정 영 이서란 박경찬 박민선 이승민 손영희 김해민 이정민 김은영 이새미나</

한·일 문화개방, 대중은 복습중 정책은 예습중

‘한·일 만화가 엽서교류전’ 열려...만화 외 대중문화 개방 움직임도 활발



‘만화 강국’이라 인 정받고 있는 일본의 만화제작 기술은 국내 만화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때문에 가장 빨리, 합

법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만화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국내 연재만화책까지 발을 넓힌 일본 만화는 국내 만화와 더불어 수많은 이야기와 개성 넘치는 주인공으로 우리의 문화적 허기를 달래주었다.

그런데 연초를 맞아 ‘양’의 탈을 쓴 한국과 일본의 만화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달려라 하니’의 이진주, ‘짱구는 못말려’의 우시가 요시토 등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만화가·카툰 작가들의 엽서교류전을 한자리에 모은 ‘한·일 만화가 엽서교류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 행사는 만화가협회(회장=신문수)와 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성완경)가 공동주최 하는 행사로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이

전 열렸다.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지난 98년 시작한 ‘한·일 만화가 엽서교류전’은 동질감을 살리기 위해 양국의 문화적 공통분모인 ‘12지신’을 행사 주제로 정했다. 올해는 계미년을 맞아 양을 소재로 한 다양한 엽서교류서를 선보였다.

먼저 오수나 씨는 색동한복을 입은 소녀가 양 옆에서 다과상을 준비하는 그림을 한자에 표현해 한국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또한 박기소 씨는 남과 북을 상징하는 두 마리 양이 함께 달려가는 모습을 엽서에 담았다.

일본 만화가 중에는 연날리기를 하는 양의 모습을 담은 마에오카 테스야 씨 엽서가 눈에 띄었다. 전시 일정 밖에도 8일에는 이진주, 윤승운 씨의 싸인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유명 만화가들의 엽서교류 감상 뿐 아니라 엽서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표현된 양국의 새해풍습과 생활습관 등을 엿볼 수 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부천만화정보센터 송대호 간사는 “양국의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는 문화행사를 자주 열어 한일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 외에도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한일 문화교류는 눈에 띄게 진척됐다. 지난해

10월에는 한일문화교류회(공동위원장=지명관, 미우라 슈몬)가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를 촉구하는 ‘한일문화교류에 관한 선언(이하 서울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만화를 제외한 대중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것이 사실이다. 서울선언 한달 뒤 MBC 한일합작 드라마가 일본어 대사를 그대로 방송해 한일문화교류의 비판을 받은 사례가 이를 보여주는 실례다. 이처럼 정부의 문화개방 정책 속도와 대중들의 기호변화 속도는 몇 년 동안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한일 문화교류는 현 개방정책에 비해 앞서 있다”며 “문화를 개방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을 맞이해 연초부터 일본 대중문화를 완전개방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정책을 바꾸느냐 마느냐에 앞서 우리는 이미 ‘짱구’가 그려진 과거, 시대극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일본어 대사, 일본 노래를 번안한 노래에 거부감이 없는 ‘대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향후 주제인 대중의 호흡에 맞는 문화, 그것이 진정한 ‘대중문화’ 아닐까.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문화단신

뮤지컬 전용극장 착공

예술의 전당(사장=김순규)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2004년 6월까지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뮤지컬 공연의 활성화와 함께 그동안 뮤지컬에 자리를 내주고 공연을 하지 못했던 오페라 공연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뮤지컬 극장이 설립됨으로써 예술의 전당은 오페라 극장·미술관·음악당 등을 모두 갖춘 복합문화센터로 거듭나게 됐다.

한편 이번에 착공되는 뮤지컬 전용극장의 지하에는 영화복합상영관 등을 유치해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역부터 이어지는 대규모 ‘문화광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새정부 대중음악진흥정책 토론회

‘새정부 대중음악진흥정책 제안 토론회’가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된다.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무했던 대중음악정책을 지적하고 앞으로 대중음악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음악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대중음악 유통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향 모색 △음악 저작권 문제의 개선 과제 △음악산업제도 개혁 과제 등을 세부 주제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773-7707

클릭!

지역문화 네트워크(www.localculture.or.kr)



온양문화제, 강릉 단오제, 매지 달맞이축제 등 각 지역에서는 매년 향토색 짙은 지역문화제를 개최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 의 시민들의 참여가 어려워 단지 ‘지역축제’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오랜 준비 끝에 얼마 전 문을 연 ‘지역문화 네트워크(www.localculture.or.kr)’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간 연대의 틀 마련 등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이 곳의 가장 큰 장점은 분리되어 있던 지역별 축제와 포럼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문화모니터링’ 코너에서 진행되는 각 지역 시민들의 지역문화 평가보고서는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 네트워크’라는 이름만 보고 이 사이트가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왜냐하면 문화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 코너와 공공기관 문화시설을 평가하는 게시판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알아두면 유용한 문화관련 뉴스가 매일 업그레이드돼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폐지, 대중음악개혁 등 문화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배너가 링크되어 있다.

최근 들어 지역문화가 쇠퇴하자 지역축제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문화를 살리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문화를 함부로 훼손해선 안될 것이다.

지역간 벽을 허물고 손을 맞잡게 될 때 더욱 양질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 ‘지역문화 네트워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탈수습기



열정 넘치는 기사로

독자에게 더욱 다가갈 것

“독자신문사 기자”라는 수습기(수습기)는, 수습기(수습기)를 인터뷰하기 위해 두대 뒤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소극적이던 내가 경비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대기실까지 들어갈 용기를 냈던 것은 ‘기자’라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생,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는 생각이 부족했지만 자유는 이내 무료함이 되었다. 그래서 고교시절부터 꿈꿔온 언론사 생활을 해보기 위해 동대신문사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취재, 기사쓰기, 레이아웃 그리기, 조판 작업 등 모든 일을 학생기자가 한다는 것이 재미있게만 느껴졌다. 또한 밤을 새워가며 쓴 기사가 ‘숙’이라는 이니셜을 달고 조판된 신문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배운다는 기쁨도 잠시였다. 동기들보다 늦게 입사한 탓에 모든 업무를 단 시간 내에 배워야했고 학생과 기자의 두 역할은 감당하기가 벅거웠다. 게다가 개인시간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기자생활은 축제가 되어 나를 구속하기 시작했다.

육체적인 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게 했다. 하지만 방황하는 사이에도 내 눈은 ‘기사 거리’를 쫓고 있었다. 의식 한켠에 이미 기자라는 생각이 배어있던 것이다. 무엇보다 내 이를 석자가 들어간 기사에 대한 욕심은 다시 신문사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6개월의 수습기 기간동안 출입처와 사건현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방면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양심수 어머니와의 만남은 일반 대학생이라면 쉽게 지나쳐버렸을 양심수,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해 주었다. 더불어 방학중 이뤄진 현대사 등 각 분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들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졌다.

사용하지 않는 열쇠는 녹이 슬어 자물쇠를 열지 못한다. 정 기자가 된 지금 신속하고 정확한 취재, 오랜 퇴고의 과정을 거쳐 ‘공백 나는 열쇠’와 같은 기사를 쓰겠다. 그리고 그 열쇠로 굳게 닫힌 자물쇠를 열어 가려져 있던 진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것을 다짐한다.

한수희 기자

nature41@dongguk.edu

9면에서 이어짐

이수경 송민진 김상훈 이용건 권영민 이현오 김종률 이수환 장정환 이정은 최은섭 이대성 김상훈 이재훈 오경국 조동훈 최경환 박희욱 강태욱 유정원 최원석 황성수 박미화 최혜경 김기원 김주연 엄주원 최두환 최형정 최선례 주혜련 박은혜 성명숙 박성재 신지선 김창건 박태정 오선희 남상식

정보통신공학전공 권예진 윤희영 이종일 이정은 나선주 김승철 김권환 정용진 심상호 김민용 이형수 박진수 김현수 김현진 이은호 재방훈 박주현 이승안 전영신 최은주 금영지 김현경 김경권 배희정 정 훈

조경학 엄영태 조진호 김병렬 서협찬 남성이 김홍석 안윤현 장지원 김근우 윤용찬 정재욱 조성민 김규규 서병수 이승현 이창훈 소종호 이경호 최은성 이호준 이수용 선수경 이희진 김정은 권순식 김수선 지은경 이도훈 최라운 김민정 최은주 손준미 서동목 박은아 최선희 김주영 노태경 김계희 배정훈 박혜린 강경리 권지연 정병국

안전공학과 박민규 김상원 이지현 김상기 이광무 류승영 안정환 최지훈 김용호 임영태 임현식 이상금 정진훈 이삼형 박현일 최형훈 김도원 이정은 양승진 이도희 이지현 하동규 심도원 김치호 이효섭 이재학 김영근 권진만 오정현 정준열 최우성 김진수 여지은 신현걸 신대명 윤태인 윤동윤 민승남 류원식 김재현 유태근 남종현

수학교육과 조 민 김영도 오태호 김동훈 이재호 김명섭 배석환 장미석 조현진 이윤희 김은주 김양희 정하영 구교진 김주연 심원재 한수진 전대영 김희숙 최화영 최미선 홍주연 김희정 박정림 손선진 사공명 김주희 김현아 박희영 이지은 강기자 김용준 김다영 김보희 강효영 조수연 김 미

가정교육과 권경희 이현진 정준영 박혜린

최창영 박은파 왕준영 손혜선 금효정 김정숙 윤주영 조은하 강성애 최우희 김지에 조은주 김옥희 김희정 김현진 민경진 전진지 한가영 권선희 문경미 신정희 임옥경 권다영 윤소림 이지은 허정은 김은희 김선희 박혜진 윤연희 김은영 배숙희

법정대학

행정학전공 이혜규 이정익 황재혁 권용호 김경창 서혁준 이용규 양정훈 김연수 신정규 박시용 도승재 박수민 홍진희 손종익 황종환 김범수 김동일 임택준 신유철 최영현 고명석 이준대 김광현 한인희 윤지현 서민정 정진주 이재희 김경정 오필규 정호숙 박현민 김혜숙 상주현 최소승 김현진 박혜경 박희희 이명순 배선영 김영화 이정은 정 의 이준한 김진욱 양원희 김주실 조성희 강현주 전성아

국제관계학전공 박동진 서승환 김정환 송희열 설대환 임승하 최형인 권대근 박용주 허재성 이석형 우자명 배상현 허태운 윤인정 정영식 최동혁 고은혜 박지선 주재홍 이형석 노선희 이지은 최지경 김은희 이은주 김경애 신혜경 이은화 박시영 노경원 최진석 홍지연 이연우

법학과 이원철 이광용 김재용 김승범 이상희 변세영 이재준 김대홍 김무원 심진보 배재식 유근우 김상영 김태훈 류규근 은석찬 천현우 김대환 정재욱 전욱보 김순복 박성모 장기현 양우신 김성민 최일태 임지나 김정수 임재희 류경화 김애호 김민경 김현주 안상영 이송희 서현숙 안정남 김광주 주은진 오태경 이선욱

상경대학

경제학전공 류희식 최우진 이승택 최우영

박주용 오주형 이강식 정용환 김용국 김원용 박진석 손현주 이경석 송치현 김세훈 장용갑 김현정 임현정 김유진 이호열 양성철 양정훈 김가현 김자영 엄태일 이도한 배은영

국제통상학전공 정동남 박종구 박경모 진경용 김철환 김현욱 정인교 홍기용 이도훈 채종택 김동훈 송만선 이철우 송용석 김도형 김대현 이태용 조홍장 박현수 문호준 김상문 박상대 빈정욱 모규현 서준호 김도호 김한열 김진호 박진수 이호정 김대년 이은경 김미화 박민혜 박성욱 이순영 이희영 김한수 김수영 최민정 신수진 김효연 최영주 황승주 문성신 김지은 김지영 이주연 김혜성 유두선 김태호 박희원

경영학전공 김덕린 신정필 이윤성 이상모 천재영 한상진 정진성 김중구 조우철 곽동국 조상현 박재우 허준석 박용근 김동철 김정훈 이상호 김지실 김승민 서석호 김동환 한상민 윤정덕 김광현 안태용 김용국 황성훈 이지형 정준원 전기수 임지현 채문식 이종호 이재도 김현석 모영욱 최준호 이동주 안진용 김성진 최현식 김재환 김상현 박영준 실성우 정보철 김경대 조우현 황재환 박강식 심성태 김형수 김대기 김재만 조재영 임보영 김하룡 한영주 정연정 공태인 이미에 김수진 김명미 서영미 김태홍 전상훈 이명숙 박수철 신영하 김현정 김민정 홍자영 김연주 강석룡 윤현진 왕수진 신영순 김민정 권순현 오세정 박정은 우은영 이은애 정은주 임혜진 김혜정 이수정 김혜능 윤소영 현지연 손영욱 박용현 이형림 박선희 박시인 김효정 김해민 김효린 김종철 이경현 김명현

회계학전공 조석진 이상훈 전용욱 안광희 김형욱 엄승환 이광식 손인철 주연길 성병유 최원필 오승수 이창호 윤성현 이 박 김희희 김관배 송명수 이순형 정정호 김춘식 전근표 이상진 이미숙 최지원 이태광 정지희 김민지

이상민 유지연 김 현 천성희 석은정 엄상희 김효선 박소현 이은희 박해란 김동화 윤희경 신상철 전민훈 임주영 박영재

정보산업학전공 박영기 정우용 홍성일 정민관 심규진 박병재 오동현 김구경 고 준 심상호 강종구 남현철 정석모 권종기 임철우 박현일 고진홍 신동혁 이인혁 김정수 유지원 오동훈 차진욱 손태이 박일용 김규린 김동현 박영민 정정보 장태연 조장남 임재용 서상희 이정희 정세진 정가영 양 희 유유미 윤경민 임진희 우현영 최지은 김도정 김성욱 박정현 권선희 이정민 김지영 김병훈 배유경 권지영 강성배 류태협 이연주 최희연 정선화

관광대학

관광경영학전공 이민우 김경록 장홍석 김기원 박상용 오해훈 오정택 곡시영 이세원 김성택 강동일 권진주 이지현 강정숙 정서희 오현희 정정수 권희숙 양인영 한소라 허수진 윤성운 신미혜 김광수 이연희 이남영 선산순 박준용

호텔경영학전공 김덕숙 박성훈 최인석 김현철 조미경 이인주 오윤혜 이은화 정재정 송민정 김지영 심현정 박수경 한은혜 최미희 최상미 오미영 박지영 최정욱 서은숙 김현경 정지명 배은숙 편태경 정선영 허윤영 배금선 이은정 이나경 이영희 정영숙 최진주 김이경 박은정 박홍식 김리라

한의과대학

한의학 오한무 신진호 권재현 조성규 서진우 최재우 조홍래 김우원 구재식 문기선 주영준 김남희 박순희 송명수 방소영 정정호 서재택 강상욱 백정흠 최승규 함경근 김영근 김진욱 김무영

석주영 이혜경 이영화 이석은 양기호 장성임 박 일 조영욱 조 일 활동서 조현덕 문종근 박수진 김동현 이몽수 최민희 조경원 황용호 정현정 김정주 장익종 김운정 류강현 박정훈 김갑은 원연택 김준범 김진경 김한샘 김세원 장가근 김희준 김연석 장진용 김주호 신원용 장윤석 송희명 정우병 이정은 손원라 김학진 방호열 강 원 김도형 김성이 강석우 최명숙 김영은 이동진 신경훈 전상규 양준형 김현우 박수미 최민영 유현정 최용준 정수경 김은하 박세호 권택현 이승섭 최민우 박은경 김지훈 김 호 한정희 박완열 김은진 장준혁 박민재 김승원 김태일 이정철 도용호 이명진 이명기 김홍희 정지아 박대민 김희희 김미주 전인균 손재철 임대정 김신아 송미영 이동광 심성흠 전영주 박기범 정소영 최태석 안혜성 박준석 양영철 성현호 류병욱 배승태 김상운 강동민 손정민 최영민 김성원 김재현 류지선 최봉화 고종욱

의과대학

의학과 심병주 환철길 김유성 이종민 정민아 문성욱 박종욱 정진욱 양철호 안성준 최태민 이동영 김승민 김신영 김동희 정연재 서희정 이용국 김준수 지예실 최재형 김지현 강동호 정재열 오주선 정현진 여승현 김은진 하종은 임재우 남지형 김용석 김신아 윤원경 김한민 송민재 최효선 신용태 황미리 신지현 김수민 정재욱 박종욱 박홍식 노지영 강형욱 지경석

임미향 김운주 김선희 조정아 서민경 이미정 권수민 김은경 박수민 안현영 고경희 최승희 최숙희 정수현 이희욱 이재화 박선화

경주캠 아간강좌

컴퓨터학전공 김정현 신용라 최원광 강현진 안상훈 이형욱 김승철 김중우 권기원 박정섭 김동수 박진혁 여동수 이윤창 신갑재 이효섭 정형동 손은욱 박종필 박후락 신수홍 최경숙 오석준 이형석 안세준 박은철 박상형 이수홍

법학과 김병근 장현수 하현욱 이재석 박창욱 여용기 김대석 최정아 정재호 조유미 송승석 조덕현 안택규 신영주 김채미 김진태 정은정 박지호 김성진 김대화 조희용

경영학전공 정용덕 오종문 김성만 이재철 김진성 전수현 공상혁 김혜경 서영민 김원혁 김재열 김원섭 박승일 김상훈 권종훈 송병철 정숙희 신정호 정광연 박명재 김경희 박기수 김준용 이명주 김혜진 박선영 김선현 고대령 홍지연 심민정 서민정 황희중 이강일 송승희 김남희 이희목 이상민 김현주 최병천 최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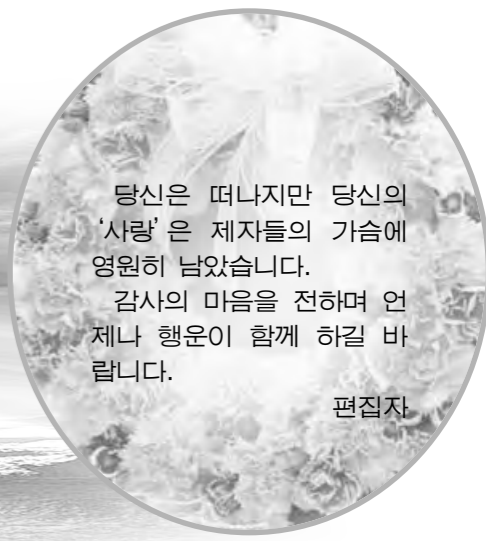
정보산업학전공 박천민 임성혜 강우익 서기철 하은수 손진훈 이종태 이영재 홍상환 권성환 도명삼 나정은 손화용 김수정 김규환 이은정 김예희 우성협 황보광진

관광경영학전공 김종근 박희용 손명일 류성환 이원용 정동환 김현식 박현화 임현선 송은식 권세혁 강보경 오수진 이훈선 구원서

호텔경영학전공 지보권 이종원 서용태 정재훈 심재상 박진우 홍정우 민경태 조상훈 임수정 이성의 박일환 배준영 조 민 임영민 변하아 이다은 박찬미 조혜영 임재석 추운경

퇴임교수 인터뷰

어둠속에서 빛을 발하는 영원한 등불이시여



끈기와 노력을 바탕으로 학업에 열중해야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거든요.”

학생들에게 인자하기로 유명한 허천택(영어영문학) 교수.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네. 그러나 당연히 제자들을 아낄 수밖에 없지” 자신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에 미소짓는 허 교수의 모습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인자함이 느껴진다.

허 교수는 56년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해 처음 본교와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의 고리는 그가 67년 대학원을 졸업한 후 본교 강단에 서면서 계속 이어져 동약은 허 교수에게 인생의 동반자이자 삶의 터전이 됐다.

이렇게 허 교수가 본교와 깊은 인연을 맺은 만큼 그의 학교에 대한 애정과 제자 사랑 또한 각별하다.

“한창 공부할 시기인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했으면 좋겠어.” 시간강사시절,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낮에는 대학강단에서, 밤에는 야간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학문에 소홀하지 않았던 그였다. 그러나 후배, 제자들이 자신과는 달리 끈기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 못내 안타까운 기색이다.

또한 그는 현재 동약이 예전 만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건학이념이 학문적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철저히 구현된다면 동국의 진정한 발전도 이뤄질 것”이라며 학교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조언도 잊지



허 천택 교수 (문과대 영어영문학)

않았다.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대성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는 허 교수. 이런 그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인 듯 허 교수는 퇴임 후에도 월리엄 워드워즈의 장편서사시 ‘The Prelude’ 번역, 대학생을 위한 영시 시집 발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학생으로 교수로 그리고 교무, 정책위원으로 동약의 역사와 함께 해온 허천택 교수. 인터뷰를 끝내고 장 밖의 학교를 바라보는 그의 그윽한 시선에서 동약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평생 가르침’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릴 터

앞만 보며 오랫동안 달리던 기차가 종착역에서 멈춰야 할 때의 느낌은 어떨까.

30년 간 가르침이라는 철도 위를 달리다가 어느새 종착역을 맞이한 교수가 있다. 언제나 정장차림에 종질모를 쓰고 다녀 ‘교수계의 신사’로 불리는 백봉흠(법학) 교수. 아직도 달릴 수 있지만 시간이 되었으니 정리해야겠다는 그의 목소리 뒤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묻어 나온다.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에 꿈을 품은 백 교수는 법학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다. “법질서는 평화의 바탕인 만큼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쳐 평화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었네.” 지난 61년 본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73년 본교 강사가 됨으로써 가르침의 꿈을 이룬 그는 오랜 교직생활동안 ‘학생들과 함께’라는 교육철학을 이어갔다.

“강의실뿐만 아니라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는 교육 또한 소중하지.” 이런 그의 말을 증명하듯 백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설악산을 등정했을 때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떠올렸다.

이처럼 가르침의 열정이 넘치는 그는 퇴임을 앞둔 지금도 학생들에 대한 생각에 여념이 없다.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부지런히 습득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인 만큼 빠른 적응력을 지녀야지”라는 그의 당부에서 스승의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



백 봉 흠 교수 (법과대 법학)

평생 가르침을 멈추지 않겠다는 백 교수는 퇴임 후에도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하며 그의 꿈을 이어갈 계획이다. “혼자서 말하는 사이버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외롭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네.” 늘 대화 속에서 강의해온 그에게 사이버 강의는 아직 낯설지만 가르침 속에서 보람을 찾는 마음은 한결같다.

가르침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달릴 수 있다는 백봉흠 교수. 마지막은 곧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듯 그가 또다른 종착역을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길 기대해 본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언제나 ‘자부심’ 갖고 자기계발에 힘쓰길

조용히 잔이 오가던 어느 술자리. 침묵을 깨고 한 교수가 탁자 위에 올라가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기타를 흥내내는 춤을 추기 시작한다. 순간 술 자리는 호탕한 웃음바다로 변하고 교수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다시 술잔을 기울인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학생이고 싶다는 신현소(생명화학공학) 교수. 61년 본교를 졸업하고 70년 화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돼 반평생을 본교와 함께 한 신 교수의 제자사랑은 이러한 그의 열정만큼이나 각별하다.

“교수는 걸어다니더라도 학생들은 벤츠를 타야지. 내가 학점을 높게 주지 않는 것도 그만큼 노력하라는 뜻일세.” 신 교수에게 제자들의 발전은 자신의 발전보다 더 기쁜 일이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학생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엄격함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가 발전한 만큼 학생들은 더욱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준비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논문 발표를 위해 몇 일간 밤샘 작업을 하는 그의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은 이런 엄격함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에 가능했다. “요즘 자부심이 부족한 학생이 많아 걱정이야. ‘나는 할수 있다’를 수 천번 되뇌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도 다 해낼 수 있을걸세.” 신 교수의 제자 사랑은 이렇듯 애정 어린 충고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가 공부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



신 현 소 교수 (공과대 생명화학공학)

부는 아니야. 낭만과 멋을 마음껏 즐겨야지.”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대학 생활을 즐기지 못했다는 신 교수는 학생들에게 ‘멋진 대학 생활’을 당부한다.

언제나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동약을 지켜온 신현소 교수. 그는 퇴임 후 그가 일궈낸 제조회사에서 방수복 바느질부분에 풀이 투과하는 것을 막는 테이프(Seam sealing tape)를 해외 각지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제 30년 간 해오던 가르침의 문턱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그의 앞길에는 교직 생활 때와 같은 ‘열정’이 함께 할 것이다.

한숙희 기자 nature41@dongguk.edu

한·일 함께하는 문화의 장 마련위해 노력할 것

“매일같이 산을 정복하고 있지만 학문은 끝이 없는 것 같네.”

40여 년의 교육인생이지만 아직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오영진(일어일문학) 교수.

그에게 학문은 몰두하면 할수록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퇴임 후에도 연구와 집필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어는 그가 일본에 앞서고 싶어 시작한 학문이다. “단지 일본어 공부에만 그치는 것 같아. 일본을 배우고 연구해 사회에 봉사하고 싶었지.” 오 교수는 자신의 마음을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어학을 지도하면서 교육철학도 함께 가르쳤다고 한다.

또한 그는 강단에 설 때 도덕을 바탕으로 편애하지 않는 것을 교육철학으로 삼아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모든 제자는 하나라네. 사석에서는 친분이 있다할지라도 학생들은 모두 같았지...” 그가 아쉬운 듯 내뱉는 말 속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육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요즘 학생들이 취직에만 연연한 채 학문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그는 한국과 일본의 문물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여 년 간 한국어일어문학회에서 해 오던 집필 활동을 국제언어문화에서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그의 희망 속에 작은 ‘문화방’이 꽃피고



오 영 진 교수 (인문대 일어일문학)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려 하는 것이다.

일본을 알게 되었기에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오 교수. 퇴임이라는 이별이 앞서지만, 그는 자신이 평생 몸담은 교육자의 길을 여전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려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네. 난 다시 태어나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가 될 걸세” 평생 교육인생을 걸은 그의 열정이 퇴임 후 일본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신정환 기자 sjh10th@mail.dongguk.ac.kr

주입식 교육 벗어나 학생 개성 위한 교육 실천

“퇴임이라는 순간을 진작에 있어버렸어. 그동안 해 오던 일이 있거든.” 퇴임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쓸쓸함을 감춰 버리는 방정애(철학) 교수.

방 교수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마주한 시간은 경주캠퍼스가 해 온 역사와 같다. 경주캠퍼스가 문을 연 첫 해에 학생들을 향한 그의 교육도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많이 변했어.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라며 학교 개교 당시를 어렵게 떠올리는 방 교수. 그의 기억 저 편에는 부쩍 늘어난 학생들과 문무관, 자연과학대 건물 상당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교육학을 전공한 방 교수는 20여 년간 교직 강좌를 맡아왔다. 그래서 그가 학생들에게 전하는 교육철학은 남다르다. “교육은 꽃을 피워 가는 과정이래네”라며 미소를 짓는 방 교수에게서 국화꽃과 같은 그윽한 향기를 느껴진다.

그에게 교육이란 일률적인 지식 주입이 아닌, 개개인의 개성을 꽃피우는 것이다. “장미나 소나무를 보게. 나름대로 그들만의 모습이 있잖아. 교육도 똑같아”라고 말하는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 왔다. “꽃이 어디 한 순간에 피나?” 방 교수는 아주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이 좋다는 방 교수. 그는 이제



방 정 애 교수 (인문대 철학)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삶을 배우고 있다.

“생활 선을 배우고 있어. 인간 본래의 자리를 찾고 있는 셈이지.” 생활 속에서 참선을 배운다는 그는 언행과 마음 씀씀이를 통해 자신이 배우기도, 남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한다.

개강하면 희망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눈빛을 보지 못해 아쉬울 것이라는 방정애 교수. 이제 그는 본교를 떠나지만 그가 남겨놓은 교육철학은 제비꽃, 민들레 꽃처럼 자신을 가꿀 줄 아는 학생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이지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아직 식지않은 열정 꿈나무 육성에 쏟을 것

“42.195km를 뛰는 마라톤을 아는가? 이제 반점쯤을 돌러고 하네”라며 퇴임이 곧 또다른 시작임을 알리는 최규철(사회체육학) 교수. 본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하면서 학교와 첫 인연을 맺은 최 교수는 경주캠퍼스 개교 당시 1기 교수로 강단에 섰다.

“처음 문을 연 80년대에는 원효관 건물이 1층이었고, 운동장은 흙이 산더미로 쌓인 채 허허 빌판을 연상케 했대네” 라고 말하는 그는 지난 20여 년 간의 긴 세월을 필름 한 통 속에 담으며 학교가 많이 발전했음을 전한다. 하지만 참 밖으로 눈길을 돌려 캠퍼스의 한 켠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약간의 아쉬운 표정이 나타난다.

“90년대 초 교수회가 설립되면서 부총장을 선출하거나, 임명하기 시작했네. 아직은 경주캠퍼스가 발전 과정에 있는 셈이지”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효율적이고 현장감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경주캠퍼스에도 총장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또한 서울캠퍼스 공통 분모 속에 학교 행정 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원간의 화합을 강조한다.

마라톤 코스를 한참 달려왔지만, 그는 아직도 쉽없이 도전하려 하고 있다. “나이는 많지만,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해 왔기 때문에 아직 젊대네.” 최 교수는 조깅, 테니스, 골프 등 삶의 동반자가 되어 온 운동을 매일같이 해 오고 있다.

이런 젊은 열정을 이제 어린이들에게 쏟고 싶다는 최규철 교수는 대학교 시절 배운 레슬링을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 “어



최 규 철 교수 (인문대 사회체육학)

건만 된다면, 어린이 레슬링 선수를 육성하고 싶어. 불우이웃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는 아직까지 도장에 들어가 땀 흘릴 기운이 남아 있다며, 꿈나무와 함께 하길 소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제자들을 향한 배려도 남다르다. 체육학과 사무실 등이 있는 문무관 건물에 체육 전문 도서관이 생겨나길 바라며 그가 아끼는 책 수백 권을 사회체육학과에 기증한 것이다.

삶의 전환점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그에게 퇴임 후 황금같이 소중한 시간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이지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매체비평

TV 편

폭소클럽

“식상한 컬트 코미디 벗어나 관객과의 호흡 중시”



국내 최초로 스탠딩 코미디라는 장르를 도입한 KBS '폭소클럽'.

지난 연말,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갔다.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들 법도 한데 습관처럼 TV를 켜고 채널을 돌렸다. KBS2로 채널이 맞춰지는 순

간 낮은 코미디언들이 나왔다. 지레짐작, 토크쇼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기 좀 끄니까 너도 별 수 없구만', 평소와 지상파 방송들의 심야토크쇼는 '쓰레기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 코미디언에 대한 실망감이 들었다. 채널을 돌리려는 순간 갑자기 관객석이 나타났다. 자리를 꼭 채운 관객들 사이에선 연신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토크쇼가 아니었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막 '스탠딩코미디'라는 장르로 코미디프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던 '폭소클럽'이었다. 요즘 '폭소클럽'이 인기다. 한 꼭지당 한 명, 많아야 두 명이 등장해 순전히 자신의 입담과 재치만으로 사람을 웃기는 방식이 처음엔 낯설었고, 어두침침한 조영 아래 약간의 숙연하기도 한 조용한 분위기가 즉각적으로 와 닿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KBS의 새로운 시도가 신선하게 보였음에도 '모험'을 하는 듯한 불안감이 들기도 했다. 더욱이 과거 '한물 간' 코미디언들을 등장시킬 때는 반가움과 함께 제작진의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로 느껴졌지만 '저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공은 극소수 매니아층을 가진 컬트에 머물 것이다'란 추측을 미리 해버렸다. 하지만 '폭소클럽'은 인기를 끌고 있고 출연자들 중에는 인기의 척도를 가를 수 있는 '팬카페'를 가진 사람이 수도룩해졌다.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일까. 일단 기존 오락프로에 대한 시청자들의 식상함을 들 수 있겠다. 제아무리 시청률이 높게 나온다하더라도 시청자들은 잡담이

나 늘어놓고 상대 출연자에게 핀잔이나 주고 개인사나 해집는 지금의 오락프로들에 지겨워하고 있던 것이다. 바로 새로운 포맷 '스탠딩코미디'가 신선하게 다가온 것이다. 한 명의 코미디언이 관객(이 자리에는 시청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과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은 자기들끼리 말장난만 주고받는 여타의 오락프로에서 소외되어 있던 시청자에게 나름의 역할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물론 형식이 신선하다고 인기를 높일 수 있다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코미디언 코미디답게 재밌어야 한다. '폭소클럽'은 재밌다. 특히 코미디에 있어 비전문인 몇몇, 예를 들어 생활감사 장하나, 이벤트MC 김재홍의 경우, 근래 개그맨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새로운 웃음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을 포함

한 신인(무명의 설움을 겪은 신인 아닌 신인도 있지만)들이 '폭소클럽'의 인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니움을 비롯한 고참 코미디언들이 과거 에피소드라면 웃기는 것은 '향수' 이상의 것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처음 반갑게 여겼던 옛 코미디언들이 틀러리로 주저앉는 게 아닐까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세월의 연륜으로 날카롭고 시원한 풍자를 던져줄 듯도 한 데 아쉽다. '폭소클럽'의 가장 큰 매력은 아마도 출연자들의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연구일 거라고 판단한다. 시시껄렁한 웃음이 아닌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 좋은 웃음으로 코미디의 새 장을 활짝 열어갈 바란다. 박진형 문화평론가

당신도 신의 손길을 기다리십니까?

세계화·감성시대 도래로 통제불가능한 환경 늘어 인간능력의 범위 축소되고 기적 의존도 증가

최근 일확천금의 바람이 거세다. 어느 때고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겠느냐는, 요즘 점점 더 많은 대중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왜 갑자기 이런 '대박 열풍'에 너도나도 가담하게 된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사회 문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인류학자 말리노프스키는 남태평양에 있는 트로브리엔드 섬에서 현지조사를 하였다. 트로브리엔드 섬은 전편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은 바다근처에서 어패류를 채취하기도 하고 멀리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거나 항해를 하기도 하였다. 원주민들은 근해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주술을 행하지 않으나 원양어업을 나갈 때는 주술을 행하였다. 말리노프스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연안에서의 고기잡이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연제가 썰물, 밀물 때인지, 언제 어떤 고기나 어패류를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어패류 채취나 고기잡이는 그들의 지식 범위 안에서 예측 가능했다.

그러나 원양어업을 할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 물론 주민들은 원양어업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태풍이 오는 계절은 언제인지, 지리적으로 어느

곳에 암초가 많고 위험한지 어떤 배를 건조해야 바다에서 안전한지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위험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주민들은 원양어업에 나가기 전에는 만반의 준비와 함께 반드시 주술을 행한다는 것이다. 곧 주술이 행하여짐은 그것이 인간의 경험과 자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에 있었다.

만 바다에서는 예기치 못한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상어 떼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앞으로 닥칠 상황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인간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과학적 사고보다는 비과학적인 정서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통제 불가능한 환경에 있는 인간일수록 기적을 바라는 기대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점점 더 통제가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 두 가지 관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세계화 현상이다. 과거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단위를 형성하였으

며 이에 따라 각 개인도 한국사회라는 좁은 범위의 예측 가능성이 더 용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현상은 한국 사회 외적인 상황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각 개인은 과거에 비해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감성적인 시대의 도래를 들 수 있겠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가치를 부여했던 사회가 점점 감성을 강조하는 사회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적 물결을 타고 있다. 아이들의 IQ를 중히 여기던 시대에서 EQ가 발달하는 교육에 점점 더 치중하고 있으며, 감성에 호소하는 상품, 문화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이 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개인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과 자기 생활에 대한 통제 능력이 더욱 상실된 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중들을 더욱 기대심리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결국 통제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각종 사회의 변화는 인간을 점점 더 축소시켰고, 기적을 바라는 대박의 허상을 좇게 만든 것이다.

갈 길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곳, 그 곳에 있는 오늘날 '인생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임돈희
문과대 사회과 교수

동국인의 기분 좋은 상상

등록금 전액 면제

"학교에서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윤권(정보통신공2) 군은 현재 등록금 마련을 위해 신라호텔에서 식기세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등록금 면제가 시행되면 학비마련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도 덜어 드릴 수 있고,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여자친구도 사귄 수 있잖아요"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요즘 국립대학 등록금 인상 자율화로 인해 사립대학의 등록금도 감압을 수 없는 인상세를 타고 있다. 결국 고액등록금 마련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만 늘어 이러한 '속 쓰린'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에스컬레이터 설치

타학과 친구들이 평지인 캠퍼스를 거니는 것이 늘 부러웠으며, 학교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길 바란다는 이용진(화2) 양.

"학교가 높아서 매일 '등신' 하는 기분이에요. 중문, 후문, 쪽문 어디를 가나 언덕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양은 고된 등교길을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진짜 에스컬레이터가 생긴다면 시간에 쫓겨 급하게 먹던 점심도 느긋하게 먹을 수 있고, 다리도 가늘어지지 않을까요?"라며 함박 웃음을 짓는 그는 벌써부터 에스컬레이터에 오를 듯 보였다.

남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향학을 키우기 위해 이 곳에 자리잡게 된 본교. 하지만 언덕 오르느 것을 힘겨워하는 학생들은 마냥 평지가 그리운 모양이다.



학생자치운영대학

학교의 모든 업무에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던 정현욱(행정4) 군은 "총장이 이끄는 학교가 아니라 등록금 정책, 교수 임용 등 모든 업무에 학생이 주도권을 갖는 대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라며 '학생자치운영대학'에 대한 소망을 털어놓았다. 그는 "연예인, 외국인 등 학벌에 상관없이 분야별 전문인을 교수로 임용하고, 문화제를 활발히 열어 학생들이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어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지금도 학생회를 통해 학교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모든 의견을 총족시키기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상호간의 충분한 대화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진다면 '학생자치운영대학실현'이라는 기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바람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의견
△한국어 세계 공용어화 △하룻 밤새 천재로! △시험제도 폐지 △학부제 폐지 △CPA시험 합격



한숙희 기자
nature41@dongguk.edu

숫자 하나로 가려지는 대박과 허상의 두 얼굴

인간심리 반영된 '로또' 열풍 ... 사회차원의 해결책으로 부작용 막아야

요즘 지하철을 타면 눈에 띄는 광고가 있다. "이 분도 인생역전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카피를 내걸고 모델이 특정한 좌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로또(Lotto)' 복권 광고가 그것이다. 이 광고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유독 찬찬히 관찰하게 한 후 '정말 저 사람이 인생역전을 한다면'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온라인 연합복권인 로또는 구매자가 45개의 숫자 중 자의적으로 6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형식을 지닌 만큼 1등에 당첨될 확률 역시 희박하다. 하지만 10회차 1등 당첨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면서 전국은 로또 열풍으로 달아올랐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번호 선택권이 개인에게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최인철(서울대 심리학) 교수는 "내가 하면 더 잘될 것"이라 믿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당첨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또는 우연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당첨번호 앞뒤 숫자를 표시했다고 해서 '아깝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온라인에는 로또 당첨 비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사주와 관련지어 행운의 숫자를 점쳐주는 역술사이트 등이 붐몰 터지듯 등장했다.

그리고 "당첨이 되지 않아도 공공시설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산다"는 정보 군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익금의 30%를 공익기금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권과의 차별성, 바꿔 말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근로의욕 상실 등 로또의 역기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다. '안티로또' 사이트가 개설되는가 하면 노래패 '우리나라'는 로또 열풍의 허상을 지적하는 노래 '조또(jotto) 인생역전'을 발표했다. 본교 여론광장 나의주장 게시판에도 "당첨번호가 발표된 후 허무감만 들었다" "내가 왜 로또를 샀는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로또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현상화된 것이므로 개인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월드컵 거리 응원처럼 한번쯤 해보고 싶은, 해봐야 할 것 같은 로또. 매주 10만원씩 12억 3000만년동안 도전해야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확률은 뒷전으로 한 채 오늘도 행복한 상상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서민이다. 위에서 말한 광고에서 모델이 가리키는 대상이 피로에 지쳐 졸고 계신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로 오버랩되면 이내 씁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하나 기자
selllyone@dongguk.edu

한편 근로의욕 상실 등 로또의 역기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다. '안티로또' 사이트가 개설되는가 하면 노래패 '우리나라'는 로또 열풍의 허상을 지적하는 노래 '조또(jotto) 인생역전'을 발표했다. 본교 여론광장 나의주장 게시판에도 "당첨번호가 발표된 후 허무감만 들었다" "내가 왜 로또를 샀는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로또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현상화된 것이므로 개인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월드컵 거리 응원처럼 한번쯤 해보고 싶은, 해봐야 할 것 같은 로또. 매주 10만원씩 12억 3000만년동안 도전해야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확률은 뒷전으로 한 채 오늘도 행복한 상상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서민이다. 위에서 말한 광고에서 모델이 가리키는 대상이 피로에 지쳐 졸고 계신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로 오버랩되면 이내 씁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하나 기자
selllyone@dongguk.edu

▲"올인(all-in)!"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도박사는 마지막 패에 정부를 건다. 실존인물의 전설적인 일대기를 그린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 '올인'은 방영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손에 땀을 쥐는 승부의 세계를 박진감 있게 묘사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순간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는 도박판.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그만큼 커다란 위험부담이 자리잡고 있

도 하다. ▲지난 8일 저녁, 온 대한민국은 잠시 숨을 죽인 채 한 곳에 시선을 집중했다. 45개의 숫자 중 6개의 번호를 선택해 당첨여부를 결정짓는 게임형 복권 '로또(Lotto)'의 10회차 추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0회차 추첨의 1등 당첨금 총액은 835억원으로, 로또가 가져 온 복권재벌 시대의 도래를 실감케 했다. 추첨은 결국 13명의 1등 당첨자들이 각각 64억3

천43만원을 나눠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10회차 추첨에 온 국민이 보인 관심과 열기는 가히 로또 광풍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 광풍이 불고 온 후유증에 전국이 몸살이다. 1등 뿐 아니라 2,3,4등의 숫자도 크게 증가해 당첨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로또를 통해 인생역전의 꿈을 꾸었던 서민들은 정신적·물질적 타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액들

들어 로또 복권을 구입했지만 당첨되지 않았거나, 당첨되었더라도 당첨금이 투자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11회차부터 당첨금의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지만 한 번 나오는 로또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또로 손해를 본 이들이 하소연할 곳이 어디 있을까. 땀흘려 일군 결과 대신 요령에 의한 일확천금을 바라

며 로또라는 패에 '올인' 한 사람들에게는 허탈함과 무력감, 그리고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빚 잔디가 남겨져 있을 뿐이다. 로또 복권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한탄심리와 이를 조장하는 사회풍조를 적절히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열심히 꿈꾸는 당신, 이제는 깨어나라! 이수경 문화부장 papaya@dongguk.edu

메아리

인생대역전?

▲"올인(all-in)!"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도박사는 마지막 패에 정부를 건다. 실존인물의 전설적인 일대기를 그린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 '올인'은 방영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손에 땀을 쥐는 승부의 세계를 박진감 있게 묘사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순간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는 도박판.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그만큼 커다란 위험부담이 자리잡고 있

도 하다. ▲지난 8일 저녁, 온 대한민국은 잠시 숨을 죽인 채 한 곳에 시선을 집중했다. 45개의 숫자 중 6개의 번호를 선택해 당첨여부를 결정짓는 게임형 복권 '로또(Lotto)'의 10회차 추첨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0회차 추첨의 1등 당첨금 총액은 835억원으로, 로또가 가져 온 복권재벌 시대의 도래를 실감케 했다. 추첨은 결국 13명의 1등 당첨자들이 각각 64억3

천43만원을 나눠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10회차 추첨에 온 국민이 보인 관심과 열기는 가히 로또 광풍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이 광풍이 불고 온 후유증에 전국이 몸살이다. 1등 뿐 아니라 2,3,4등의 숫자도 크게 증가해 당첨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로또를 통해 인생역전의 꿈을 꾸었던 서민들은 정신적·물질적 타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액들

들어 로또 복권을 구입했지만 당첨되지 않았거나, 당첨되었더라도 당첨금이 투자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11회차부터 당첨금의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지만 한 번 나오는 로또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또로 손해를 본 이들이 하소연할 곳이 어디 있을까. 땀흘려 일군 결과 대신 요령에 의한 일확천금을 바라

며 로또라는 패에 '올인' 한 사람들에게는 허탈함과 무력감, 그리고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빚 잔디가 남겨져 있을 뿐이다. 로또 복권이 공익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한탄심리와 이를 조장하는 사회풍조를 적절히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열심히 꿈꾸는 당신, 이제는 깨어나라! 이수경 문화부장 papaya@dongguk.edu